

표지이야기
오건규 작, 무소유, 수묵, 75×145cm, 2016
한국화의 거목 아산 조방원 선생에게 사사 받았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시전,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광주시문화예술상, 대동미술상, 전남도 미술대전 대상, 광주시 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동신대, 남부대 강단에서 외래교수로서 후학을 지도하는 가하면 수필가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9년 계간지 『서정과 상상』에 「인연」, 「세한청상(歲寒淸賞)」 등으로 수필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 화업과 문학을 겸하면서 일간지에도 다수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여는 시 침향沈香을 듣는다	오소후
2	‘창’을 열며 촛불 집회와 패러디 문화	백수인
3	특집기획_ 2017 광주를 부탁해 혐오사회와 페미니즘 2016년, 세상 밖으로 ‘청년’을 외치다! 광주를 광주답게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사회적이지 않은 경제들은 없다 시민사회운동 회고와 전망 문화키워드로 만나는 2016 광주	백희정 정두용 윤난실 윤영선 서정훈 김광욱
16	문화인 탐구생활 나는 배우다! - 김종필 극단 ‘연인’ 대표	편집부
18	문화진단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광주의 정체성을 담아라! 촛불민주주의, 메이드 인 코리아	박선정 강위원
22	문화현장 연극의 발견, 무대에서 찾은 마술 같은 삶 - 제2회 시민연극제 리포트 우리들의 마을축제 미래적 가치를 담은 ‘광주정신’을 듣다 관계를 만드는 학교 ‘달피마을 달팽이학교’ 일단 한 번 와보시라니깐요	김정희 손영희 김금희 설상숙 임아영
32	문화청년그룹 예술은 가난을 구할 수는 없어도 위로 할 수는 있습니다 - 허니펀치프로젝트	양동준
34	문화톡톡 광주에서 문화의 문제 위기는 기회다 하던 대로가 아닌, 새로움 향한 시도를...	이민원 주 홍 김영순
40	재단·회원 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춧불 집회와 패러디 문화

백수인_ 조선대 교수, 재단 이사장

2016년의 키워드는 ‘춧불’ 이었다. 무엇이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다시 춧불을 들게 했는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이고 쌓인 부패와 부조리가 끓어 넘쳐서 흘러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부패와 부조리의 솥이 나라의 심장부 청와대에 걸려 있었다. 썩은 물이 끓어 넘쳐 큰 강을 이루었고, 썩은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 나라에 가득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춧불을 들고 “박근혜 하야”, “최순실 구속”, “이것도 나라냐”, “박근혜는 당장 내려와라”, “박근혜 즉각 퇴진” 등의 구호를 목청껏 외쳐댔다. 서울의 광화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마산, 춘천, 인천, 대전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저 남쪽 흑산도 항구에서까지 시민들은 춧불을 밝혀 들었다.

대통령과 그와 유착된 재벌, 타락한 언론과 정치는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조소거리로 만들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이번 우리나라의 춧불집회는 세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시위 문화”로 평가를 받았다. 외신들은 한국의 춧불 집회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주말마다 이어지는 대규모 집회가 매번 평화적이고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실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규모 춧불집회가 평화적이고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면서 “승려가 목탁을 치며 행진하거나, 애완견을 안고 동참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서울 도심의 모든 골목길이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집회는 평화적이면 서도 축제 분위기였으며, 한국의 시위 문화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우리의 춧불집회가 평화적이고 축제 분위기를 생산해 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이 넘쳐나는 패러디이다. 춧불집회 현장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이나 SNS에서도 패러디는 아주 다종다양하게 표현되어 하나의 문화 흐름을

이루었다. 노래, 영상, 만화, 시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났다.

패러디란 한 마디로 “원전에 대한 풍자적 모방” 혹은 “원전에 대한 희극적 개작”으로 정의 된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의 패러디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수사법에서는 ‘인유(引喻)’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동양의 전통적 유교주의 방식인 ‘용사(用事)’도 넓은 의미의 패러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패러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의 이른 바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의 등장부터라고 볼 수 있다.

‘춧불정국’에서 하나의 큰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낸 ‘패러디’의 정신은 무엇일까? 패러디의 방식은 원텍스트에 대한 모방이거나 개작이지만, 여기에 작용하는 정신은 ‘풍자 정신’이다. 풍자(諷刺, satire)란 “정치적 현실과 세상 풍조, 기타 일반적으로 인간 생활의 결함·악폐(惡弊)·불합리·우열(愚劣)·허위 등에 가해지는 기지 넘치는 비판적 또는 조소적(嘲笑的)인 발언”을 뜻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유 예술의 하나인 판소리의 어조는 사회의 불합리와 적폐에 대한 이와 같은 풍자 정신의 발로임은 잘 알려져 있다. 패러디가 가지는 야유와 조소는 단순히 희극적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패러디가 가지는 풍자의 바닥에는 비평정신이 깔려 있다. 비평이란 단순히 대상을 ‘치고 때리는(批)’ 행위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비평은 반드시 대상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 중심 정신이다.

따라서 오늘날 거리와 가상공간에 넘쳐흐르는 패러디 문화의 깊은 강심(江心)에는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역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



특집기획

2017 광주를 부탁해 – 2016년 광주를 말하다

여성, 청년,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시민사회, 문화 분야의 회고와 평가를 통해 2017년 광주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혐오사회와 페미니즘 백희정_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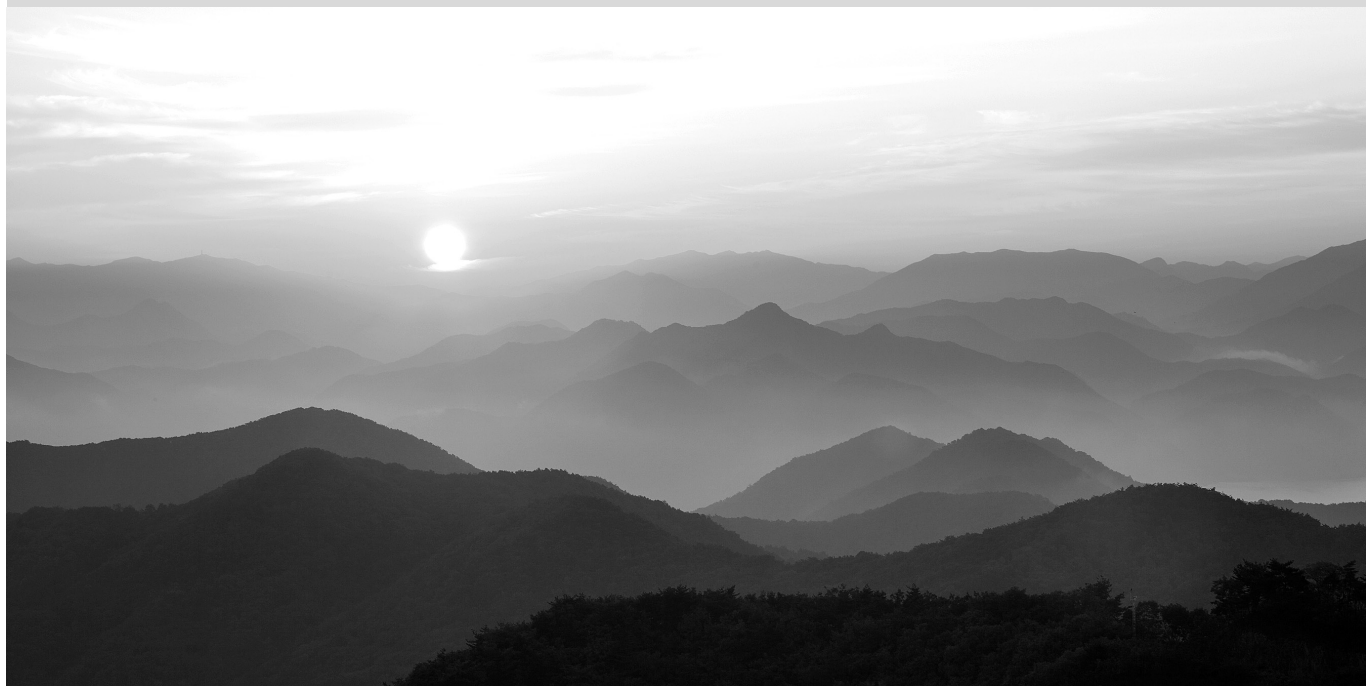
2016년, 세상 밖으로 ‘청년’을 외치다! 정두용_ 사단법인 청년문화허브 이사장

광주를 광주답게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윤난실_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

사회적이지 않은 경제들은 없다 윤영선_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시민사회운동 회고와 전망 서정훈_ 광주NGO센터장

문화키워드로 만나는 2016 광주 김광욱_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혐오사회와 페미니즘

백희정_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2016년 페미니즘은 새로운 상식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의 페미니스트 선언이 이어지고,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반드시 페미니즘 서적이 링크되는 이전에 보기 드문 기현상도 생겨났다. 그야말로 페미니즘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작은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시작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콩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탈출하다가 연행된 메르스 의심환자 2명의 사진이 웹상에 돌아다닐 때 디시인사이드 메르스갤러리 등 사이트에서는 이 여성들이 한국 여성일 것이라 추측해 소위 ‘김치녀’를 운운하며 깔깔거리는 분위기가 퍼져나갔다. 그러나 의사소통 과정에 비롯된 오해가 격리 거부로 오해를 받았다는 자초지종이 드러나고, 최초 발생자가 남성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반발로 메르스 갤러리에는 김치녀를 운운한 자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메갈리아의 탄생이다. 이들은 ‘미러링’이라는 방식으로 여성혐오에 대응해 나갔다. 미러링은 여성에게 집중된 차별적·혐오적 표현에서 성별을 바꿔 끼워 원래의 표현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인식에 기반해 있는 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를 미러링하면 ‘수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남자 기 살려주는 조신한 개념녀’는 ‘여자 기 살려주는 조신한 개념남’이 된다. 이렇게 모든 미러링에는 원본이 있다. 애초부터 여성에게 향했던 성차별과 여성혐오 말이다.

미러링의 형식으로 표현된 콘텐츠는 남성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지만, 여성들이 살면서 견뎌야 하는 불편함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거대하다는 사실이다. 미러링이 도덕적 올바름의 기준으로 따지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 누구도 그런 폭력 방식이 옳다고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성혐오에 대응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강남역 주변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사건으로 시작된 포스트잇 추모는 현재 고스란히 역사가 되어 기억되고 있고, 새로운 운동 주체들의 등장과 활동으로 페미니즘은 세상을 다시 만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페미니즘의 열풍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발전주의와 군사주의가 판치는 세계, 독선이 승자의 자질인 세계, 적대와 혐오가 상식인 세계에서 지금과는 다른 세계를 고대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은 꾸준히 지배와 폭력이 사라지는 이 다음의 세계를 말해왔고,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사회에 들리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 동안 끊임없이 여성들이 외쳤지만 사회가 귀를 막았다면, 이제는 안 들린다 할 수 없을 만큼 목소리는 커졌고 준비된 연대자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여성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논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정치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은 오랫동안 여성들을 정치영역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꺼리게 했다. 대통령의 생물학적 성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비판의 이중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성 차별이자 성 혐오라고 볼 수 있다.

여성운동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과 지난한 싸움을 해왔다. ‘여성혐오’는 태초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역사라고 유명한 여성학자가 말했듯이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어지고 있는 ‘여성혐오’ 갈등은 어제 오늘 사이 나온 일들이 아니다. 아주 오랜 기간 차별을 묵인하고 익숙한 일로 여겨왔던 결과물이다.

지난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KBS에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는 출연자의 발언을 자막으로 내보낸 것 때문이었다. 당시 방통위는 “선천적 요인인 외모나 신체적 차이를 희화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경고했다. 당시 나는 방통위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의견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즈음 ‘꿀벅지’라는 용어 또한 유행했는데, 걸그룹 멤버의 허벅지를 빗댄 말이었다. 천안의 한 여고생이 ‘꿀벅지는 성희롱’이라며 이 용어 사용을 방송에서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어처구니없게 돌아온 답은 ‘건강미 넘치는 여성의 허벅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변명이었고, 그 이후로도 ‘꿀벅지’는 언론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같은 몸에 대해 다른 해석이 내려진 셈이다.

한국에서는 ‘꿀벅지’라 불려 질 수 있는 여성의 몸과 ‘루저’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남성의 몸이 버젓이 존재한다.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들의 평가와 비하가 ‘꿀벅지’처럼 아무런 제지 없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꿀벅지’로 불리어지는 여성의 몸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매우 익숙한 일로 굉장히 차별적인 사례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한 국정 농단 사건들이 매일 감자줄기에 감자 딸려 나오듯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는 발언들은 국정 농단에 대한 분노인지, 여성에 대한 분노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여자’로서 폄하하는 수많은 표현들은 매우 불편하다. 대통령 박근혜와 여자 박근혜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에서 나온다. “여성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논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정치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은 오랫동안 여성들을 정치영역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꺼리게 했다. 대통령의 생물학적 성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비판의 이중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성 차별이자 성 혐오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메갈리아의 ‘미러링’이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여성혐오가 삶의 문제로 진정성 있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이전에 한국 사회가 여성혐오를 성찰하고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면, 메갈리아는 그다지 돋보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뱉었던 성차별적이고 성 혐오적인 말들은 고스란히 내 옆에서 함께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16년, 세상 밖으로 ‘청년’을 외치다!

정두용_ 사단법인 청년문화허브 이사장



2016년은 청년활동가, 청년단체(기업), 광주시 청년정책 관계자 등 현장 일선에 있는 ‘청년이슈’ 관계자들에게 역동적인 한 해였다. 올해는 광주에서 소위 ‘청년’ 활동과 이슈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이후로 4년째가 되었다.¹⁾ 10년이라는 중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씨앗기에서 성장기로 전환해 가는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목할 점 네 가지를 살펴보겠다.

첫째, 본격적인 광주 청년 연대의 움직임

2013년 몇 안 되던 청년 커뮤니티들이 2014년부터 가파르게 급증하기 시작했고, 청년 연대의 움직임이 꿈지락 꿈지락 있어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흐지부지 되었다. 올해 7월 출범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간 청년 연대가 공통의 사업, 친분 있는 청년들끼리의 단순 네트워킹 모임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는 청년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과 권리 등을 직접 자치단체 등에 제안하고 참여하는 등 감시와 비판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밖으로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둘째, 전국 청년 연대의 활성화

전국 차원의 청년 연대들 또한 임계점이 된 듯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 청년 연대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주도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점이 특징이다. 어찌다 모여 몇몇 지역이 모임을 시작하다, 각자 네트워킹을 가진 지역들을 초대하다 보니 전국 모임이 되고, “우리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주기적으로 만나요!”하면서 전국 단위의 청년 연대가 시작된 것이다.

1) 물론 그 이전에도 청년창업자, 청년활동가들은 있었으나, 그 이전에는 굳이 ‘청년’이라는 수식어를 잘 붙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3년 이전에는 청년인 문화기획자는 그냥 문화기획자로 불렸다. 이제는 청년문화기획자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쓰고 있다.

올해는 청년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과 권리 등을 직접 자치단체 등에 제안하고 참여하는 등 감시와 비판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밖으로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셋째, 광주시, 청년정책 방향 모색

2014 청년전담부서 ‘청년인재육성국’ 신설, 2015년 청년중간지원조직 ‘광주청년센터’ 설립, 청년당사자 기구 ‘청년위원회’ 1기 운영에 이어 올해 청년문화예술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가 신규로 생겨났다. 또한,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마련 중이며 ‘청년의 거리’ 사업, ‘청년도시 컨퍼런스’ 등 청년 사업들이 새롭게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 산하기관과 기존 시민단체 등에도 청년자문단, 청년위원회 등을 두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어 그만큼 청년 이슈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청년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민선 6기 전반기 청년 분야 시정평가는?

민선6기 광주시는 ‘청년도시 광주’를 표방하였지만 여러 시민단체들의 시정평가, 언론,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쉽게도 실속 없이 구호만 남은 것으로 귀결된다. 몇몇 언론의 제목만 따보자면 ‘청년도시? 광주시 코스프레’, ‘광주시가 갑, 청년들 얘기 잘 듣지 않는다’, ‘윤장현 시장 취임 후 광주 청년취업자 하락 전국 1위’ 등 청년정책의 시작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평가들이 뒤따르고 있다.

필자가 현장 활동가로서 느낀 가장 큰 포인트는 위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광주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청년활동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를 옮겨본다.

- 광주시 청년예산이 전체 예산 중 0.7%(참여자치 21 추산 *시 추산은 1.6%)로 ‘청년도시’를 앞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청년예산을 늘려야한다. 또한 청년복지 성격 예산이 4.6%인 것 역시 지나치게 낮다.
- 청년정책의 다양한 관계주체 ‘청년정책위원회-청년인재육성국-청년센터-청년위원회-시의화-청년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청년의제에 관해 숙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 디자인이 필요하다.
- 청년들을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사업 외에도, 청년들이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 청년인재육성과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을 청년들은 필요로 하고 있다. 성과 위주 지표가 아닌 새로운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 만 19세~39세까지 총 20년에 걸친 계층을 청년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각 연령대와 상황에 따라 이들이 원하는 청년정책의 스펙트럼은 아주 다양하다. 청년계층의 세분화와 그에 따른 정책이 절실하다.

필자는 청년문제의 본질을 ‘단절’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단절에서 벗어나 ‘함께 한다는 것’의 경험, 그를 위한 ‘자유로운 플랫폼 공간’이 생기는 2017년을 꿈꾸며 글을 마친다. 뭐가 어찌됐든 우리는 함께 나아가길 것이다. ✎

광주를 광주답게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윤난실_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



한 없이 큰 일, 마을 일!

수백 억, 수천 억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다. 지역 전체를 활동 범위로 하지도 않는다. 아파트(단지)나, 골목단위... 넓게 잡아도 동 단위 활동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한 없이 큰 일이 마을 일이다. 온 나라가 성장 제일을 말하고 경쟁을 통한 서열 중심 1등만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마을은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이웃들을 살피며 더불어 살기를 실천하고 있다. 또 있다. 마을 일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일상의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하는 일이다. 함께 모여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고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 마을은 끊어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잇고 스스로의 필요를 민주적 과정을 통해 해결해 가는 능력, 즉 주민의 힘(자치력)을 키우는 일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자본주의 문제를 극복해 가는 '대안운동'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마을 일은 단위 사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일반 행정시스템과의 차이를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이해해야 한다.(각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욕심을 덜어내고 조바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마을 일이다.

광주시 잘하고 있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혁신적인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예외 없이 추진하고 있다. 물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방식, 규모는 사뭇 다르다. 광주시 역시 민선 6기 들어 참여혁신단을 두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모사업이라 부르는 공동체 활동 마중물 사업, 사람을 키우는 마을학교 운영 지원, 마을활동가 양성 사업 중 하나인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 등등... 무엇보다 광주시의 마을 업무 담당자들은 문턱이 낮다. 마을 활동가들 사이에서 볼멘소리도 없지 않으나 다른 부서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마을 현장 곳곳에서 앞서 거니 뒤서 거니 마을 일을 꾸려 온 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관계부서의 협업도

당연히 광주시 주요 정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치지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 투입은 사업보다 사람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이제 더 늦지 않게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도 세워야 한다. '살기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달라져야 한다. 자문을 넘어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함께 평가하고 책임져 가자는 것이다.

칭찬받을 일이다. 그리고 마을 일의 지원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에게 맡겼다. 행정은 시가 아닌 자치구 중심으로, 주민활동을 도울 중간지원조직의 설립도 자치구부터. 쉽지 않은 일이다. 자기 조직 입장이 아닌 주민 중심으로 사고 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마을 활동가의 입장에서선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 무엇보다 광주지역공동체 전체 속에서 가지가 아닌 줄기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놓아야 한다. 당연히 광주시 주요 정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치지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 투입은 사업보다 사람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이제 더 늦지 않게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도 세워야 한다. '살기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달라져야 한다. 자문을 넘어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함께 평가하고 책임져 가자는 것이다. 매년, 광주시 마을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교육청, 도시공사 등 관련기관, 전문가, 그리고 마을 활동가 수백명이 모여 활동 계획을 세우고 각각의 단위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을 분류하고 적정 예산을 추계해 보고... 마치 마을 일이 그렇듯, 80년 5월의 분수대 앞이 그러했듯이.

광주를 광주답게, 마을공동체 활동!

광주는 '5·18광주민중항쟁'을 통해 저항과 연대, 절대공동체의 힘으로 세계 민주화 운동의 희망이 되었다. 다시 광장이다. 2016년, 시민들은 광장에서, 마을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그 맨 앞에 광주 시민들이 서 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의문이 남는다. 광주는 오늘도 여전히 민주주의의 희망인가? 일 상에서 광주는 5월 광주다운가? 이 물음은 광주가 스스로 안고 가야 할 과제다. 문화도시 광주, 인권도시 광주는 어떻게 구체화 되는가? 그것은 시민들의 삶의 모습으로 웅변되어야 한다.

존중과 배려, 신뢰와 협동의 힘으로 주민 스스로 일구는 공동체, 마을.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동(운동)은 광주를 가장 광주답게 하는 일이다. ✍

사회적이지 않은 경제들은 없다

윤영선_광주사회경제지원센터장



자본주의 체제는 공황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 대불황, 대공황 그리고 최근의 세계 금융위기까지 자본주의의 모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대안은 없는가? 1970년 이후 여러 나라의 정부들은 사회적경제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마도 그들은 사회적경제조직이 갖는 민주적 운영, 분배의 평등 또는 협동의 철학을 자본주의 질서의 대안적 성격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와 ‘경제’의 관계 설정이다. 이 두 단어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조직체의 특징은 달라진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논란이 많은 까닭도 이 때문이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두 가지 논점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하나는 사회적경제의 정의이다.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수없이 많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7)가 발표한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이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갖는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국가의 역할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조직들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고, 그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다양하게 존재한다. 결국, OECD가 발표한 정의로는 사회적경제를 특정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무엇인가. 분업이 발달할수록 사회의 생산은 개인적 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이 된다. 분업이 고도화된 자본주의적 생산은 항상 사회적이므로 모든 조직들은 사회적경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대기업인 삼성, 현대 및 SK 그룹도 사회적 생산을 하는 사회적경제에 해당한다. 사회적 생산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조직들이 사회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대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상관없이 사회적 여지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각 나라의 정부들은 사회적경제가 사회와 경제의 새로운 관계 맺기라는 것을 부정하며 사회적 여지보다는 경제성만 강조하며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대안경제로서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경제성만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질서에 사회적 여지라는 대안적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은 사회적경제의 행정 구분(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을 넘어 모든 기업 및 기관들이 사회 구성원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에 대치되는 경제 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 체제가 존재한다는 데서 시작된다. 각 시대마다 다양한 경제 체제가 존재하므로 경제는 항상 ‘경제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체제의 총체가 사회이므로 사회적이지 않은 경제들은 없는 것이다.

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 경제인지 아니면,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대안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인 상품과 시장에 대한 대안을 요구한다. 사회적경제는 인간 중심, 협동 및 민주적 운영 등 대안적 요소가 존재하지만, 결코 자본주의 시장 방식을 배척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를 대안 경제로 인식하는 이유는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의적 표현 때문이다.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이라는 단어는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질서에 사회적 여지 즉, 윤리적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사회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반하여 사회 구성 요소를 집단으로 보는 사회주의 사상과 공동체 또는 협동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의 철학이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두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의 대안적 실험운동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처럼 단일한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 체제로 작동되는 다원주의적인 사회이다. 역사적으로 각 사회마다 그 사회에 맞는 원리(상호성, 재분배, 가정경제, 시장경제)가 다양하게 존재했다. 오늘날 사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본주의 질서뿐만 아니라 연대와 협동의 경제 체제도 엄연히 존재한다. 현실에서도 주식회사, 협동조합, 상호부조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특유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며 사회를 이룬다. 결국 경제 체제는 다원적이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에 대치되는 경제 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 체제가 존재한다는 데서 시작된다. 각 시대마다 다양한 경제 체제가 존재하므로 경제는 항상 ‘경제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체제의 총체가 사회이므로 사회적이지 않은 경제들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여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만을 강조하며 사회적경제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정의의 모호성, 이윤 추구와 사회적 미션의 동시 수행이라는 모순적 운영 방식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최근 사회적경제는 양적 성장을 했을 뿐 사회와 경제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하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 속 사회를 지양하고 사회 속 경제를 어떻게 배태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모든 경제 주체가 사회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사회적 여지를 받아들인다면 사회 속 경제는 자연스럽게 배태될 것이다. ♪

시민사회운동 회고와 전망

서정훈_광주NGO 센터장



2016년은 시민사회운동의 존재 가치와 역할,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낳게 한 해였다.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사드배치 반대,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등으로 시민사회에게 뜨거웠던 한해였다. 지역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한해를 보냈다. 구도청 별관 지키기,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는 지하철 2호선 건설, 어등산 개발, 예기치 못한 민선6기의 실정들이 밝혀지면서 시민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커졌다. 그런가하면 내부적으로는 운동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한 희망적인 면도 있다. 풀뿌리 지역운동의 꾸준한 성장으로 이제 시민운동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면서 새로운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가지 국가 사회적 난제 앞에 스스로에게 부여된 과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시민운동이 서있는 환경은 매우 열악한게 현실이다. 보수 언론은 시민운동의 역할과 존재감이 없어졌다고 한다. 사실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회원 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재정 상태는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시민운동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보여주었던 시민사회운동의 활약상은 한마디로 눈부시다. 자기 역량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고군분투’ 했던 해이다. 아마 ‘눈물겹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다. 금년 한해 시민사회운동의 활발한 활동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하다.

1. 촛불혁명의 숨은 주역은 시민사회의 역할에 있다.

232만명 참여, 촛불집회로 한국 시위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쓰나미 처럼 거대한 촛불의 힘이 위력을 보이며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었던 국회를 견인할 수 있었다. 마침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혁명적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촛불 시민의 힘의 이면에 보이지 않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개개의 촛불이 모이게 홍보하고, 정부와 다투어 장소를 확보하고, 연단과 마이크를 설치하는 것에서부터 촛불의 정치적 목표와 행로, 방침 등 일련의 프로그램의 기획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행동의 전략과 방침을 조절하는 숨은 역할이 있었기에 6차에 걸친 시민혁명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광주, 부산, 대구 등 각 지역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냈고, 일사 분란한 정치프로그램이 가능 했던 것이다. 촛불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오랜 노하우를 통해 발휘된 결과이다.

2. 시민사회운동의 지형이 변하고 있다.

여전히 ‘감시비판’ 운동이 시민운동의 본령에 해당하고 중요한 축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비판을 통한 개선의 길이 있고,

동시에 참여를 통한 개혁의 길이 동시에 열리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역량이 행정에 집중되어 있고, 아울러 정치·행정·사법·기업 그리고 언론 등의 환경이 융합되거나 상호 연계성을 띠고 있다. 더군다나 시민참여 욕구의 증대,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선호, 지방자치, 마을공동체운동, 거버넌스 협치와 협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비판감시, 협력=거버넌스’라는 두 가지 등식에 눈여겨 볼 일이다.

3. 풀뿌리 마을운동, 사회적경제 운동을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의 1천여 개 단체들이 상설적인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형성하고 있고, 지역 단체들은 시민단체협의회, 여성연합, 진보연대, 문화도시협의회 등 협의체를 통해 자립적인 지역 운동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틀을 넘어서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두 개의 영역은 직접적 성격을 띤 시민참여 기재들이다. 풀뿌리, 생활운동, 일자리 성격을 띠고 있다. 바로 마을공동체운동과 사회적경제 운동이 그것이다. 금년 들어 급격한 확장세를 보여주었다. 이 두 영역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시민사회는 새롭게 떠오르는 마을운동과 사회경제운동을 기존의 시민사회 운동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4.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사회 위상 높이기

최근 지방자치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는 경험들이 쌓여가고 있다. 서울, 성남 등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고 있는 혁신-협치 사례를 찾기 위해 지역의 단체들과 행정이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 참여혁신단에서 간막이 행정을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지역 시민운동단체들 또한 이를 환영하면서 한 해 동안 민관합동워크숍과 라운드 테이블, 협치연구모임 등 다각적으로 민관 협치를 모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사회운동의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시민참여 확대, 시민단체의 역량과 전문성, 역할과 지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밖에 위에서 정리하지 못한 수 많은 운동들이 있다.

5. 2017년 시민사회운동을 전망하며

2017년 시민사회운동은 19대 대통령선거라는 큰 국가적 이슈가 있기에 어떤 면에서 보다 단순하게 전개될 양상도 없지는 않다. 이곳에서 구체적인 운동의 전망을 논하기는 어렵고, 다만 장기적인 시민사회운동 관점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마을운동과 사회경제 운동을 시급히 자기영역으로 설정하고 시민사회운동의 지평을 새롭게 여는 대대적인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성찰적 시민운동, 위기의식을 가진 운동을 해야 한다.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내일 당장 우리단체의 역할이 끝날지 모른다는 종말론적 운동마인드와 자기 성찰을 늘 견지하면서 현장에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핵심은 사람, 인재양성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부분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사실 상근자 급여주기도 만만치 않은 시민사회의 척박한 재정 풍토에서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인재양성과 교육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동이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상근자들의 전문성 고양과 함께 운동가로서의 자기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야만 한다.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전망과 비전은 아주 밝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머물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다. ♪

문화키워드로 만나는 2016 광주

김광욱_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아시아문화전당 #230만 #무난함 #본말전도

작년 연말에 개관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많은 우려 속에서 출발했던 것이 사실이다. 260만이라는 관람객 목표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정식 개관 직전에 새롭게 구성된 인적 자원이 콘텐츠 개발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국가조직도 민간조직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 형태로 출발한 것이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손실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국가 아젠다가 아니라 지역 숙원 사업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이 프레임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1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광주의 커다란 짐이 되지는 않을 정도로 선방했다고 평가한다. 관람객 230만 명은 호평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난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타겟팅고객이 제대로 온 것인지, 개관 이슈에 편승한 단기 효과이거나 단체 관람 위주의 집객인지 따져봐야 한다. 내년에는 관람객 수의 질량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콘텐츠로 입소문이 나고 이를 통해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되었으면 한다.

콘텐츠에 대해 한 마디 더하자면, 구성에 있어 밀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지만, 몇 가지 눈에 띄는 콘텐츠가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아시아문화의 중심이 되겠느냐라는 물음에는 여전히 부정적일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예술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문이다. 내년에는 방문객 수나 조직 문제보다 콘텐츠에 집중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기대한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9만 연계 #시작

올해 시작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많은 이슈를 남겼다. ‘프린지’라는 제목에 걸맞는 행사인지, ‘광주’ 정체성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등등이 있었지만, 29만명이라는 성공적인 집객 숫자로 내년에 대폭적인 예산 증가가 이루어졌다.

가장 중요한 의도이면서 논란거리인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합격점이라 하기 어렵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프린지 페스티벌로 이어진 것인지, 아니면 프린지 페스티벌이 새로이 발굴한 고객들을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어지게 했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양쪽 모두 미흡했다는데 무게중심이 있다. 다소 급하게 추진된 기획, 그러다보니 현장 인력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많아졌고, 사실상 동원에 가까운 공연단체 섭외

실무경험이 있고 중소규모의 축제를 기획할만한 경력이 된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이 새롭고 다양한 문화시장을 발굴해야 한다. 그래야 신규 인력의 진입이 줄을 잇게 되고 광주문화도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 내년이라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10년은 해야 변하지 않을까?

는 내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내년에는 광주문화재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안착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행사 개최일이 배로 늘어나서 알차게 행사 운영이 될 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청년문화기획자 #제자리 #10년

올해로 두 번째 맞는 청년문화기획자 육성 사업은 규모가 크거나 화려한 실적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광주문화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문화기획은 문화예술과 시민을 매개하는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광주의 문화시장이 커지고 광주만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기획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당초 사업의 목적은 현장 지향형 인재, 현장 실무경험이 있는 인재를 대상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현실은 달랐다. 지원한 사람도, 선발된 사람도 현장 실무경험이 없는 대학생과 대졸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좀 더 경력이 있는 청년들을 찾으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2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왜 실무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까? 많은 청년들이 문화기획에 뛰어 들었다가 성장 가능성에 회의가 들어 몇 년 뒤에는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경험이 있고 중소규모의 축제를 기획할만한 경력이 된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이 새롭고 다양한 문화시장을 발굴해야 한다. 그래야 신규 인력의 진입이 줄을 잇게 되고 광주문화도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 내년이라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10년은 해야 변하지 않을까?

#세월오월 #민주평화교류원

세월오월과 민주평화교류원은 올해를 말하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광주의 이슈이자 국가적 이슈였다. 내년도 전망을 할 수 없는 이슈이지만 곱씹어 볼 필요는 있기에 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기로 했다.

몇 년 전 광주시를 떠들석하게 했던 세월오월 작품이 올해 다시 한 번 이슈로 떠올랐다. 윤장현 시장의 용기 있는 고백(?)도 한 몫을 했지만,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제와 불안정한 시국이 맞물려 세월오월을 다시 띄웠다. 큰 이슈였지만, 핵심은 이것이다. 그럼, 내년부터 블랙리스트는 없어지는 거야?

민주평화교류원 문제는 아시아문화전당 건설 중단과 많은 부분 겹쳐진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 꼭 짚어보고 싶은 것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태도다. 국책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중차대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느긋해 보인다. 내년이라고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들(?)은 또 그럴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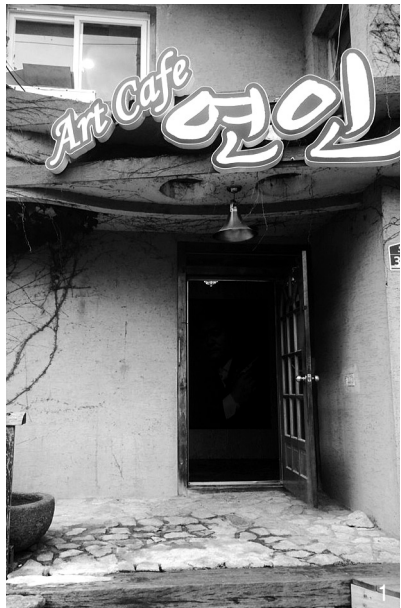
작년에 이어 최근 아마추어 연극인을 위한 축제인 제2회 광주시민연극제를 마친 김종필 예술총감독을 만나기 위해 그가 전남 화순에 등지를 뜬 ‘아트카페 – 연인’으로 향했다. 현재 그는 문화도시 광주를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광주 문화단체들이 결성한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회원단체 대표 중 한명이자 현재 프로젝트 극단인 ‘극단 연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최근 광주시민연극제 예술총감독으로도 활약하였다.

아마추어 연극인을 위한 광주시민연극제 만들고 싶었다
광주 시민연극제 개최를 최초로 제안했던 김종필 감독은 일반 시민들이 연극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장이 없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추어 시민극단 교육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가 창단했던 ‘DL(dramatic life) 극단’은 벌써 13년 역사를 가지고서 1년에 2회 정기공연을 할 정도로 성장했고, 최근에는 서구문화원 ‘극단 정거장’을 만들어 자체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5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광주(남구 주민극단 ‘쉼’) 화순(화순주민극단 ‘레인보우’)에서 시민극단을 만들어 교육하고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 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시민극단은 시민 자체가 주인이 되어야 하기에 절대 본인이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극단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도록 본인은 재능기부를 할뿐이다”라고.

배우로서의 삶 그리고 열정
그에게 어떻게 연극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묻자 그는 우연한 계기였다고 말한다.

사실 통기타를 좋아했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 대학가요제를 목표로 열심히 음악을 공부했다. 그런데 조선대 입학 후 통기타 동아리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모 선배(?)의 끈질긴 설득으로 ‘맥-극예술연구회’ 동아리에 들어가며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단다. 그리고 현재까지 연극과 인연을 맺고, 100편 넘는 작품에 출연하는 등 열정적으로 배우로 살고 있다.

그가 대학 4학년 때 창단되었던 ‘극단 얼아리’에 대학 졸업 후 바로 입단하였다. 이후 극단 얼아리 대표를 10년 넘게 맡아 운영하였다고 한다. 대학 졸업 직후, 사실 그는 연극만으로 생계유지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조선대 경영학과



1 아트카페-연인 입구 2 연극 〈정인〉 포스터 3 정거장 연극 공연 모습 4 연극 대본연습 모습

를 졸업했기에 대응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회사생활과 배우생활을 병행하였다. 그는 늘 당당했다. 신입사원이었던 그가 본인은 연극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지점장과 사수에게 그 당시 저녁 9시, 10시에 퇴근하던 시절임에도 법정 퇴근시간인 저녁 6시에는 꼭 퇴근하겠다는 말과 함께 한 달에 한번 이상 신발을 새로 사야 할 정도로 1년 간 본인의 업무지역 이었던 전남, 전북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기기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영업 일을 열심히 했다. 그 결과, 1년 만에 영업 실적이 전국 1등을 몇 번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 그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만 하다. 그는 저녁 6시 칼 퇴근하면 바로 극단에 가서 연극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일과 배우활동을 병행하는 삶은 그가 30대 초반 되었을 때 건강 상 무리를 주었고, 그는 연극과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단다. 그는 과감하게 제약회사에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그는 이후 소극장 ‘아리’ 만들어 활동하며, 연극이론을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원광대 대학원 연극치료학과에 등록하여 석·박사를 했다. 오랫동안 연극 활동하면서 연극교육은 계속 진행해 왔었고, 연극치료, 역할극, 심리치료, 싸이코 드라마 등을 공부하며 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 대상 교육과 상담사, 복지사 보수교육 등의 문화예술교육

을 하였다. 화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인연으로 청소년, 시민대상 교육을 하러 왔다가 작년에 화순에 맘에 드는 공간을 발견, 새로운 문화공간 ‘공연카페’ 만들고 싶어 ‘아트카페 – 연인’을 오픈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화순에 등지를 트는 일이 결코 쉽진 않다고 말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나에게 그는 화순 ‘아트카페 – 연인’ 베이스캠프를 두고서 계속적으로 교육활동, 배우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영화 쪽으로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자 한단다. 올해 제2회 국제 웹 영화제가 서울 코엑스에 서 1부 행사를 하고, 담양에서 2부 행사가 열렸다. 그는 담양에서 로마, LA, 독일 등 20개 국가 웹 영화 창시자 20~30명과 우리나라 영화감독조합, 영화PD조합 30명이 함께 만나는 행사로 2박 3일 팸 투어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그는 광주 지역배우가 제대로 대접받고, 영화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배우활동 영역을 넓혀주고 싶다고 말한다. 새로운 도전에 대해 설명하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앞으로의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나는 배우다!

- 김종필 극단 ‘연인’ 대표 편집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광주의 정체성을 담아라!



박선정_광주대 겸임교수, 재단 정책위원장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문화전당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문화전당의 가치는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문화로 승화하기 위한 터전이면서 전당에서 생산된 창조적 에너지를 아시아와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고 재창조하는 문화발전소이다.

지난 4월에 시작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 12월1일 시상식을 끝으로 8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공연부문 369개 단체와 체험프로그램 부문 380개 단체가 페스티벌에 참여했고 연인원 29만 여명이 관람했다고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임을 감안한다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페스티벌이 가능성을 확인한 요인은 광주시의 대대적인 홍보와 매달 격주 토요일 개최라는 정기적 행사,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라는 높은 접근성, 동아리 등 아마추어 예술 단체에 까지 공연무대를 제공한 점 등이다.

시상식에 이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점이 언급되었다. 아울러 이 페스티벌이 문화전당에 가졌던 시민들의 기대치에 대한 대체재로서의 역할,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향유 기회 제공, 전문예술단체와 아마추어를 아우르는 도심 속 거리축제로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페스티벌을 두고 벌써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브

랜드 축제라고 성급하게 규정짓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도시의 대표축제는 그 도시의 정체성이 축제의 목표와 운영과정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 잘 담겨져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자연스럽게 불리지는 타이틀이다. 더군다나 축제의 공간이 갖고 있는 장소성과 역사성은 광주의 정체성이 가장 잘 발현되어야 할 공간이다.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는 명실상부한 민주·인권·평화 정신의 산실이다. 따라서 페스티벌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러한 정신과 가치가 전체 프로그램의 중심 맥락을 형성하도록 구성했어야 했다.

그런데 페스티벌은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득했지만 광주의 정체성이 표출되는 일관된 주제의식을 찾기가 힘들었다. 주최 측의 자료에 나타난 페스티벌의 기본 목적을 보더라도 광주의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문화중심도시 위상을 정립하며 문화도시 공동체를 구성하겠다는 지극히 일반적인 서술만 하고 있을 뿐이다.

광주가 벤치마킹 했다는 세계적인 프린지 페스티벌인 에딘

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탄생 배경을 보면, 페스티벌을 도시정체성과 연계해서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들고 도시의 고유 특성을 증진하려는 전략이 담겨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자는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 페스티벌이 시작되었던 터이다. 에딘버러에는 프린지 페스티벌뿐 아니라 국제 페스티벌, 군악대 페스티벌, 국제 책 축제 등 여러 페스티벌이 연중 열리고 있다. 이러한 각종 페스티벌은 지역의 공동체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무엇보다 에딘버러에 대한 주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시켰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면서 유럽의 대표적인 축제 중심 창조도시로 자리매김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시작 당시부터 지켜오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가 공연자를 초청하지 않는다는 프린지정신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공연보상비가 없다. 에딘버러 프린지에는 누구나 참가하고 아무런 제약도 없지만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다. 하향식이 아닌 참가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 상향식 운영방식, 즉 개방성과 자생성이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정체성인 것이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문화전당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문화전당의 가치는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문화로 승화하기 위한 터전이면서 전당에서 생산된 창조적 에너지를 아시아와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고 재창조하는 문화발전소이다. 그런데 개관 1년이 지난 지금 전당의 현 주소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광주의 가치와 정신은 외면한 채 보여주기 식의 프로그램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유이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지속가능한 광주의 브랜드축제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당이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즉 광주의 정체성이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프로그램으로 특화해야 한다.

에딘버러에서 시작된 프린지 역사는 국제페스티벌에 초청받지 못한 작은 단체들이 축제의 주변부(프린지)에서 자생적으로 공연하면서 시작된 것인데 바로 이러한 자생성이 독창적이고 참신한 형식을 만들면서 관객과 언론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프린지페스티벌의 효시인 서울프린지 페스티벌이 19년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도 자유참가



©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

2016년 프린지페스티벌 모습

원칙을 지키면서 예술가의 창의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실험적인 무대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에딘버러의 개방성과 자생성 그리고 서울의 독립성은 그들의 정체성이다. 광주는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어느 축제장에 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함으로는 차별화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광주는 관 주도형 축제다. 권위와 형식을 탈피한 예술가의 창의적 기획력을 앞장 세워 광주다움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광주의 정체성을 어떻게 예술로 풀어갈 것인가를 진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

촛불 민주주의, 메이드 인 코리아



강위원_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여민동락공동체 대표살림꾼

민주주의란 마이크를 독점한 세력으로부터 마이크를 회수해서 마이크 한 번 쥐어보지 못한 위대한 평민들에게 마이크를 돌려주는 것이다. 정치란 끊임없이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본령이어야 한다. 결국 주체는 시민이다. 그래서다. 촛불 민주주의엔 두려움이 없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사는 생물’이라 했던가? 한국 촛불 집회가 그 공식을 깨고 있다. 세계사에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상표다. 약탈도 방화도 없다. 문화와 축제만 있다. 연행자도 중상자도 없다. 포기하지 않는 시민만 있다. 경제도 배제도 없다. 우애와 존중만 있다. 광장을 메운 100만, 200만 촛불시민은 피 흘리는 폭력, 익숙한 민중혁명을 넘어섰다. 폭력이나 비폭력이나의 논설조차 필요 없다. 해맑은 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몸’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시위’ 그 자체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중요하면 서도 중요하지 않다. 당장의 성과로만 촛불의 결과를 한정할 수 없다. 촛불은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집단적 분노와 시민저 항을 넘어 이미 가장 적나라한 민주주의 학습장이다. 세상을 바꾸는 힘의 근원을 스스로 확인하고 집단적으로 논증하는 용광로다. 몸으로 학습된 시민의 영향력은 측량불가다. 삶이 그렇다. 단 한 번의 참여와 체험만으로도 인생 전체의 맥락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촛불 민주주의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 인 이유다.

촛불 민주주의는 이제 민주주의의 세계사적 상징으로 보편 성을 얻어가고 있다. 21세기 들어와 과연 대한민국이 세계의 긍정적 상징이 된 적이 있던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 대를 살고 있다는 나라에서 한 해 1만 5천 명씩 자살하는 세 계 1위 자살공화국의 감옥에 갇혀 살 뿐 모범을 말할 수 없다. 제 아무리 한류니 뭐니 해도 세계 유일 70년 분단과 70년 적 대를 이어가고 있는 ‘20세기적인 나라’의 오명을 씻어낼 수 없다. 하물며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80년 5월도 있었고, 87년 6월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또다시 독 재자의 2세가 버젓이 새로운 독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주의 의 완벽한 파산이자 역사의 부정이다. 재벌들은 승승장구하 고, 정경유착은 노골적이고, 정치는 자영업으로 변질된 지 오 래다. 민주주의 파산은 시민살림 붕괴로 이어졌다. 수십 년에 걸친 산업화 민주화의 결과는 국민소득 상위 10%가 국부의 50%를 독점하는 격차사회 양극화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다. 독일의 유력언론 <디 자이트(Die Zeit)>는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예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말한다. ‘감격적인 것을



보았다. 만약 한 시민이 부정과 무능에 대하여 싸워야 할 때,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을 때, 국민들과 국회는 어떻게 국가의 꼭대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 한 사례가 바로 한국에 있다고. 어디 독일 언론뿐이라. 전 세 계가 지켜보는 촛불 민주주의, 메이드 인 코리아. 세계가 말 한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배우려거든 대한민국 촛불 민주주 의를 주목하라고. 역설도 한참 역설이다. 박근혜 게이트로 추 락한 대한민국을 촛불이 살리고 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국격을 촛불이 끌어 올리고 있다. 촛불 민주주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고개를 들게 하고 있다.

나아가 촛불 민주주의는 위임 대리정치의 장애물을 걷어내 고 있다. 이전의 촛불과도 다른 양상이다. 주권자와 정치 사 이의 구조적 격차를 메워간다. 그야말로 직접민주주의 광장 정치의 확장이다. 거리와 인터넷 광장에서 최대 다수의 집단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간다. 통치시대 의 극복이자 자치시대의 개막이라 할 수 있다. 정치가 질서를 만들고 시민을 동원하는 게 통치라면, 시민이 질서를 만들고 정치가 이에 따르게 하는 게 자치다. 촛불 민주주의 과제는 민 주주의의 하방에 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꿔 가되, 중요한

건 나와 내 공동체 안에 온전한 민주주의를 내재화 시키려는 노력이다. 국가에서 마을로, 통치에서 자치로, 관치에서 협치 로의 이행이다. 촛불 민주주의가 중앙집중 지도와 주도의 호 령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민주주의 난장과 만민공 동회로 이어지는 이유다. 민주주의란 마이크를 독점한 세력 으로부터 마이크를 회수해서 마이크 한 번 쥐어보지 못한 위 대한 평민들에게 마이크를 돌려주는 것이다. 정치란 끊임없 이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본령이어야 한다. 결국 주체는 시민 이다. 그래서다. 촛불 민주주의엔 두려움이 없다. 물리적 폭 력의 시대를 압도적 다수의 시민이 평화의 상징 촛불로 제압 해 버렸다. 촛불 민주주의엔 엄숙함이 없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축제로 승화해 버렸다. 촛불 민주주의엔 차별과 배제가 없다. 깃발의 외침이든 팻말의 주장이든 모두 의 언어를 포용한다. 이것이 바로 2016년 대한민국 촛불 대항 쟁이 이뤄가고 있는 촛불 민주주의의 저력이다.

그래서다. 촛불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다. 때로는 광장의 들불이 되어 국가적 전복을 기획하고, 때로는 일상의 행동이 되어 마을의 자치를 이뤄가는 일로 말이다. 두 려움 없는 평화로, 엄숙함 없는 축제로, 차별 없는 존중으로, 오래도록 길게 지치지 않고. ♪

연극의 발견, 무대에서 찾은 마술 같은 삶

– 제2회 시민연극제 리포트



김정희_시인, 재단 운영위원장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 보통 10여 명 내외의 아마추어 배우들은 연습장에서 대본을 들고 온 힘을 기울여 연기를 한다. 연극을 통해 배우는 꿈을 꾸고 관객은 그 꿈을 보고 읽는다.

문화도시 광주는 아마추어 연극인을 위한 시민 극단이 활동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척박한 조건이다. 그만큼 연극하는 인구도 많지 않고 연극판을 벌여도 관객이 부족하다. 영화나 음악공연과 같은 쉽게 접할 수 있고 화려한 외형이 있는 공연

문화에 익숙해진 탓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결국 연극에서 비롯된다. 연기는 물론 음악, 무대연출, 음향, 소품 등 모든 것이 연극 무대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광주 서구문화원은 열악한 지역 시민극단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제1회 시민연극제’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제2회 시민 연극제’를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6개 극단이 참여 했고 올해 2개 극단이 늘어 8개 극단이 <사평역>, <크리스마스 선물>,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 <해와달>, <굿닥터>, <서서평일대기>, <마당극 심청전>, <아름다운 사인>을 매일 색다른 향기를 담아 혼신의 연기로 무대 위의 인생을 펼쳐 보였다.

매년 가을 예술의 도시 파리의 밤을 빛나게 하는 백야 축제(Nuit Blanche)는 2002년 파리시의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파리시 문화담당 보좌관 크리스토프 지하드(Christophe Girard)가 한밤 동안에 현대예술을 몸으로 흠뻑 느끼며 즐겨보자는 아이디어를 내 탄생되었다. 그는 “뉴욕, 도쿄의 경우 야간 문화 활동이 왕성한 데 비해 파리는 자정만 넘으면 고요 속에 빠져 든다”며 “2만5천㎡가 넘



2016 제2회 시민연극제 모습

서구문화원은 이들의 친숙한 경험과 매번 조금씩 새로워지는 변화를 “시민 연극제”의 공연 무대를 통해 재생해 내고자 했다. 이 도시의 감성, 숨겨진 설화를 살아서 움직이는 감동으로 바꾸려는 또 다른 시작-창의적인 문화컨텐츠로 성공한 도시 바르셀로나에서 ‘라발스럽다(ravalejar)’는 말은 끊임없는 변화를 꾀하는 것에 대한 극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는 문화 공간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집단적인 ‘꿈의 공유’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 행사의 목적은 시민의 공간을 주인인 시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문화 민주화를 추구하고 현대 및 전위예술을 함께 보여주고 파리 문화예술의 주류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야축제의 현장에는 -모두에게 열리고 모두에게 무료인 문화행사 - 다각적 형태의 현대적 창조행위 장려 -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장소의 무대화 등등이 명시 되어 있다.

광주의 도시축제와 공연 예술을 들여다보면 별다른 콘셉, 전략 없이 도시 안에 있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비슷한 공연을 묶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양산하는 것을 종종 본다. 물론 기반시설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으나, 자칫 차별성 없는 축제로 전략하기 쉽다. 축제는 매번 조금씩 새롭게 구성 되어야 한다. 특별할 것 없는 이웃들이 밤이면 배우들로 변신한다. 서구문화원은 이들의 친숙한 경험과 매번 조금씩 새로워지는 변화를 “시민 연극제”의 공연 무대를 통해 재생해 내고자 했다. 이 도시의 감성, 숨겨진 설화를 살아서 움직이는 감동으로 바꾸려는 또 다른 시작-창의적인 문화컨텐츠로 성공한 도시 바르셀로나에서 ‘라발스럽다(ravalejar)’는 말은 끊임없는 변화를 꾀하는 것에 대한 극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 무형의 문화 컨텐츠를 전달하는 가장 구체적인 매개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은 전문 배우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이라든지, 무대에 오르기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제2회 광주시민연극제’는 시민극단들이 연습장소도 제대로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작품을 준비하고 공연을 기획 완성했다. 돈이 드는 배경세트도 그림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소품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했다. 연출은 기존 연극인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 극본은 이미 알려진 대본을 연출자와 머리를 맞대고 수정 보완하며 완성했다. 다만 출연진만이 순수 아마추어 배우로 연기에 대한 열정만으로 겁 없이 무대에 올랐다. 서투른 대사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대로 뛰어드는 최초의 뽕핀처럼 절실했다. 이번 시민 연극제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변화는 주민자치센터 마다 새롭게 탄생한 동네 극단이다. 서구 풍암동의 극단 ‘숲’과 화정4동의 ‘화사한 마을 극단’ - 풍암동의 극단 숲은 동네 신탁에서 연습공간과 홍보에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 인생은, 사랑은 시든 게 아니라네 / 다만 우린 놀라움을 잊었네 / 우린 사랑을 잃었을 뿐이네.

김용택 시인의 「첫사랑」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놀라움과 서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필자는 시민연극제의 무대를 바라보며 늘 거기 있었던 것을 다시 주목하고 떠올렸다. 특히 가슴 아파하며 지켜 본 무대는 주부극단 ‘우연愛’의 동화극 <해와 달>이었다. 주부극단 ‘우연愛’는 엠마우스 복지관에 자녀를 맡긴 엄마들의 모임으로 올 6월 결성되었다고 한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를 찾기 위한 연극무대, 서로의 상처를 안을 수 있어 더욱 애뜻하고 연기를 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들이 연기한 <해와달>의 주인공들처럼.

연극은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라고 한다. 때로는 일탈의 모습으로 구조화된 권력에 대항하기도 하는 것- 이제 내년 제3회 시민연극제를 기대한다. 이 도시의 한 공간에서 밤이라는 감성적인 시간대에 신비하고도 색다른 시각으로 예술의 도시 광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연극제-겨울 창문에 편지처럼 다가올 흰 눈과 새 아마추어 극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레이며 대사를 연습하고 있을 훈훈하고 조금은 쓸쓸한 세모의 무대가 떠오른다. ♪

우리들의 마을축제

손영희_어울림공부방 대표



언제부터인가 가을이면 어김없이 축제행사로 온 마을이 들썩인다. 그 옛날 시끌벅적했던 마을잔치처럼 어른들은 이리저리 분주하고 바쁘지만 아이들은 마냥 신나고 즐겁다.

경로위안잔치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께 식사 한 끼 대접했던 행사가 이제는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형식의 변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 잘 지내자는 바램을 담아내는 현장이랄까.

공부방이 자리한 이곳 방림동에서도 10월에 마을축제가 열린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함께한 지역특성화문화예술사업 중 하나로 진행했던 작은 마을축제가 이제는 뽕뽕다리마을축제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지 5년째이다. 아이들이 어릴 적 즐거운 추억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자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 시작된 것이 이렇게 발전하여 마을 내 학교와 기관들이 참여한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지금은 기획과 진행,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광주천과 마을 뒷산처럼 지형적 옛 특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마을에서는 뽕뽕다리로 이웃 마을을 오가던 옛 정서를 되살려 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마을축제의 중요한 토대로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마을 내 학교(초, 중, 고)와 교육·문화 기관들 그리고 자생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나름 설레기도 했다. 참여한 단체들



제5회 뽕뽕다리 마을축제 모습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함께 참여하며 즐거웠던 그 시간만큼 마을에 대한 애정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쌓여 나가는 것을 느낀다. 나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들의 마을축제가 되길 원한다. 화려하지 않아도 넘치게 풍족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주체라서 좋다. 투박한 듯 그러나 어색하지 않게 우리의 삶 그대로가 담겨있는 자연스러움이 또한 좋다.

의 특성에 맞게 어린이들은 생활장터의 주인으로 생기발랄함을 선보였고, 청소년들은 학교 동아리 활동을 자랑하듯 다양한 체험활동을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고, 어른들은 먹거리와 행사 곳곳의 힘든 일들을 도맡아 했다.

거리공연에서 자신의 끼를 맘껏 선보이며 수줍어하면서도 장터 수익금 중 일부를 이웃돕기 연탄 기부금으로 전달하는 어린이들은 어느덧 마을의 주체로 우뚝 서있음을 보여준다.

음식 나눔 또한 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조출한 상차림 음식부터 김치전, 떡볶이, 붕어빵, 파전 등 마을 단체 별로 정성스럽게 만든 먹거리들을 찾아 이웃들과 나누어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해가 갈수록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들도 늘어나고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행사진행도 서툴고 부족함이 엿보인다. 때론 한정된 예산과 참여 단체들 간 행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생길 때면 서로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하다.

한편으론 외형적인 요소에만 치우쳐 자칫 축제의 주체인 주민들은 멀리 있고 외부에 보여주기 식의 행사로만 남을까 염려스럽기도 하다.

지난 5년간의 마을축제를 되돌아보니 변한 건 이름만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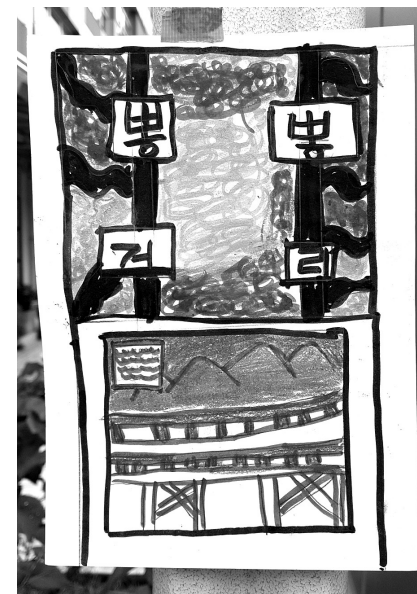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함께 참여하며 즐거웠던 그 시간만큼 마을에 대한 애정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쌓여 나가는 것을 느낀다.

나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들의 마을축제가 되길 원한다.

화려하지 않아도 넘치게 풍족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주체라서 좋다.

투박한 듯 그러나 어색하지 않게 우리의 삶 그대로가 담겨있는 자연스러움이 또한 좋다.

동요에 맞춰 서툴지만 귀여운 율동을 선보이는 유치원생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어르신들의 웃는 얼굴에서, 행사장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아이들의 활기찬 몸짓에서, 나는 마을축제란 이름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방림초등학교 학생이 그린 뽕뽕다리

미래적 가치 담은 ‘광주정신’을 듣다



김금희_ 광주광역시북구청 『북소리』 편집위원

북구청-(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10회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운영
‘광주정신의 미래적 가치를 찾다’ 주제·지역민 120여명 대상 강좌 ‘성료’

호남 의향과 광주정신의 역사적 흔적을 찾고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 계승을 위해 기획된 ‘제10회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 북구청과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함께 마련한 이번 시민대학은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북구향토음식 박물관에서 지역민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좌는 ‘광주정신의 미래적 가치를 찾다’를 주제로 ‘마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광주정신’, ‘공동체로 만나는 광주정신’, ‘의향으로서의 광주정신’, ‘예향으로서의 광주정신’으로 진행했으며 마지막 시간은 ‘충남 보령’으로 역사문화 탐방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첫 번째 강좌는 ‘마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광주정신’을 주제로 지난 10월 4일 진행됐다. 이날 강좌는 대인예술시장 전 고필 총감독이 맡아 ‘광주의 미래적 가치, 마을에서 찾자’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전 감독은 우리가 사는 공간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광주정신’의 시작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사는 길과 마을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며 고을, 동네, 마을, 집 등을 예로 들며 단어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어 과거와 현대의 마을의 형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했다. 전 감독은 “마을에서 가치를 찾는 작업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짊어질 미래 세대에 대한 투지”라며 “스스로 터무니를 남길 줄 알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시민의식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1일 열린 두 번째 ‘공동체로 만나는 광주정신’ 강좌는 여민동락공동체 강위원 대표가 맡았다. 강 대표는 이날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언제나 지혜롭다’를 화두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광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명에 정신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도시’이며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가진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광주정신’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광주공동체의 미래비전을 설계하기 위해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지역민들이 불인지심(不忍之心)의 마음으로 나눔·배려·연대·협동이 있는 시민자치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삶 속에서 잊혀져가는 ‘광주정신’이 시민들의 일상용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북구와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호남학, 임란의병, 동학혁명,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중항쟁 등을 통해 숭고한 광주정신의 참 뜻을 이해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을 운영해 왔다. 제10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은 ‘광주정신의 미래적 가치를 찾다’를 주제로 시민대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고, 미래적 가치를 담은 광주정신을 찾아보는 계기를 삼고자 진행됐다.

세 번째 ‘의향으로서의 광주정신’ 강좌는 지난 10월 18일 김성 전 무등일보 편집국장 강의로 진행됐다. 김 전 편집국장은 “호남은 역사적으로 중앙정치권보다 정의를 택한 ‘충·의·인의예지신’의 고장으로 변방의 사대부들은 ‘정의의 아웃사이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호남, 의향, 광주정신의 의미를 차례로 소개했다. 그는 ‘전라도 사람들은 국난에 팔을 걷어붙인 의인의 고장’이라며 정묘호란·병자호란 때의 의병활동, 위정척사운동, 동학농민혁명, 3·1운동과 학생독립운동, 4·19와 5·18광주민중항쟁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전 편집국장은 끝으로 “의향의 정신이 ‘광주정신’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민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좌 네 번째는 이이남 미디어아트 작가가 맡아 ‘예향으로서의 광주정신’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광주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자’를 화두로 지역과 조화를 이뤄 발전하는 다양한 미디어 아트 세계를 소개했다. 이 작가는 기술을 예술로 만들어낸 것이 미디어아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는 이미 예향·의향·문화창조도시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 도시이므로 광주가 ‘광주정신’을 통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작가는 “광주·전남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시”라며 “이제는 광주가 가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기반’에 광주정신의 옷을 입히는 작업을 통해 ‘빛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와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호남학, 임란의병, 동학혁명,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중항쟁 등을 통해 숭고한 광주정신의 참 뜻을 이해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을 운영해 왔다. 제10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은 ‘광주정신의 미래적 가치를 찾다’를 주제로 시민대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고, 미래적 가치를 담은 광주정신을 찾아보는 계기를 삼고자 지난 10월 4일 첫 강좌를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됐다. 



보령역사문화탐방 단체사진



제10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개강식

관계를 만드는 학교 ‘달피마을 달팽이학교’

설상숙_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사무국장



‘꿈 찾는 달팽이’들의 마을 만나기

마을은 지극히 일상적 공간이며, 실제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기란 쉽지가 않다. 나와 마을이 관계맺음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와 관계없는 공간은, 있지만 없는 공간과 같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 특히나 청소년에게 있어서 마을이란 통학로 이상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무생물처럼 느껴지는

마을에 우리와 관계가 있는 ‘그 곳’과 ‘그 사람’을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한 마을학교가 시작되었다.

월산동의 마을학교 ‘달피마을 달팽이학교’는 월산동장님이 교장선생님을 맡고 있으며 마을어른들 35명이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재미난 마을 살이와 배움을 일구어 가기 위해 만든 학교이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꿈 찾는 달팽이’인데,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마을직업체험 프로그램이다. 월산동에 소재한 치과, 약국, 꽃집, 카센터, 새마을금고, 복지관, 평생교육관, 인디밴드작업실 그리고 인근마을의 미디어작업장, 목공작업장, 방송국이 마을 배움터가 되었고 그 공간에서 일하는 직업인들이 직업 멘토가 돼주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청소년 3~4명이 한 조가 되어 7개의 마을배움터를 방문한다. 약 100분 동안, 멘토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 이야기, 직업 이야기를 재미나게 해주고, 직업체험 활동도 진행한다. 대부분의 배움터는 학교에서 도보로 3분~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학교에서 배움터로 이동하는 동안 길잡이교사들이 함께 한다. 7명의 길잡이교사들은 학교의 교사, 학부모, 마을주



마을직업체험 프로그램 활동 모습

7명의 길잡이교사들은 학교의 교사, 학부모, 마을주민으로 구성되었다. 길잡이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마을배움터로 이동하고, 멘토가 아이들과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곁을 지키며 숨겨져 있던 아이들의 모습을 재발견 해준다. 그 과정에서 아이도 몰랐던 재능이 발굴되기도 한다.

민으로 구성되었다. 길잡이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마을배움터로 이동하고, 멘토가 아이들과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곁을 지키며 숨겨져 있던 아이들의 모습을 재발견 해준다. 그 과정에서 아이도 몰랐던 재능이 발굴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찾고 있는 꿈과 어른들의 이루지 못한 꿈이 만나는 곳, 마을 배움터

무진중 지리교사인 김숙 선생님은 청소년의 꿈에 대해서 “열 네살 인생의 꿈이란 일상의 과대확장이다. 게임 레벨이 순식간에 올라가거나, 고기를 맘껏 먹거나, 노력 없이 성적이 올라가는 것 등이다.”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진로교육이란, 어찌면 튀긴 통닭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곰삭은 한식을 차려준 것과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 중1 아이들에게 있어서 ‘곰 찾기’란 너무 빠른 이야기 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마을배움터에 방문해서 멘토들을 만나기 시작 했을 때, 아이들의 태도와 눈빛은 달라졌다. 달팽이들은 마을 배움터를 방문하고 “너무 짧아요.”, “다음에 친구랑 또 오고 싶어요.”, “엄청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재미있어요.”라는 감탄을 쏟아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들의 눈빛은 한층 진지해져 있었다. 다행히 우리 달팽이들은 통닭도 좋아하고, 곰삭은 한식의 진가도 아는 아이들이었다.

달팽이들 못지않게 눈빛이 진지해지고 있는 그룹이 있으니, 멘토들과 길잡이 교사들이다. 마을 멘토 중 한명인 동신치과의 신희중 선생님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멘토가 되는 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을 빛냈었다. 신희중 선생님은 아이들의 멘토가 되면서 자신의 소박한 꿈을 이루었다. 월산동에 작업실이 있는 ‘인디밴드 아이엠’의 리더, 남인우 선생님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학생들과 모여 앉아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색다른 경험이다.”며 “호기심 많고 순수한 아이들의 시각을 접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고 배우는 것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달팽이들이 자라는 동안 마을 어른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진지한 아이들의 눈망을 속에서 잠시 잊었던 ‘이루지 못한 꿈’을 기억해 내고 있다.

따듯했던, ‘그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

2016년 한 해 동안 월산동에는 우리와 관계있는 따듯한 공간이 15개 생겼고,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 수 백개가 만들어 졌다. 달팽이들에게 있어서 마을의 골목은 이제 통학로 그 이상이 된 것이다. 학교 가는 길에 매일 지나던 ‘그 꽃집’에 ‘그 선생님’이 있다. 또 ‘그 카센터’에 바로 ‘그 선생님’이 있는 것이다. 늘어난 관계만큼이나 늘어나게 된 감정의 결들이 우리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아이들의 내면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도, 골목에서 마주치게 되는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의 알은체가 정겹다.

일단 한 번 와보시라니깐요

임아영_ 청소년삶디자인센터 협력기획팀



“예전에 여기 열람실이 십 원이었어요. 1967년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방학 때는 매일, 학교 다닐 땐 언니랑 주말마다 여기 왔죠. 지금 주차장 자리에 있던 극장동에서 공연이 열리면 엄마랑 왔어요. 그 땐 공연장이 여기밖에 없었거든. 지금 여성장애인 상담하고 사례를 조사하는 일을 해요. 내 집 같았던 학생회관, 아니 이 곳 삶디에 와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삶디 2층 ‘공유책상’에 매일 찾아오시는 올혜 예순, 최승미 님이 소녀처럼 들떠 말한다.

광주 충장로 한복판에 있던 학생회관(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청소년삶디자인센터로 올해 새 간판을 달았다. 이곳에서 일한 지 다섯 달 됐고 ‘삶디’가 문을 연 지는 두 달이 되어 간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만나고 일을 꾸미는 일을 맡고 있고, 원래도 사람 구경 좋아하지만 삶디 1층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표정과 움직임을 살피니 재미있다.

동공 커진 채 거침없이 걸어가는 이들은 백이면 백, 화장실로 향한다. 시선을 45도 올리고 달 착륙한 암스트롱처럼 느리게 들어오는 선남선녀들은 새로운 데이트 장소를 물색하러 왔다. 유모차를 끌고 다섯 살 아래 꼬꼬마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들은 2층 ‘지혜로운 방’에서 짐을 풀고 기저귀를 간다. 들어오자마자 삶디 홍보지를 챙겨들고 누군가와 눈 맞추려 하는 여자분들은 분명 아이를 둔 엄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이에게 이곳을 소개해도 좋을지, 미리 답사 온 분들이다. 그리고 어디서나 눈에 띄는 선홍빛은 필경 침대 소녀들의 것이다. 시내 어딘가에서 그들에게 똑같은 빨간 립스틱을 나눠주는 것일까.



개관식 전체 사진



청소년 삶디자인센터 정문

삶디엔 ‘모두의 부엌, 커뮤니티 카페 크리킨디, 생활목공방, 살림공방, 열린책방, 지혜로운 방, 공유책상, 미니극장, 작고 큰 회의실, 워크룸 여러 개, 랄랄라홀, 몸짓작업장, 녹음스튜디오, 합주실, 그리고 삶디텃밭’이 있다.

마지막으로 낮설지도 급하지도 않은 걸음과 눈빛으로 들어서는 이들이 있다. 줄곧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삶디 곳곳을 들여다보는 그들은 대부분 학생회관에서 침대를 보냈던 분들이다. 학생회관에서 매일 십 원씩 내고 열람실에 다니고 지하에서 라면을 사먹었거나, 1층에서 우아하게 서예 전시를 보고 시낭송 모임을 했거나, 극장동에서 학교축제라 베이스 좀 튕겼고 때때로 극장동 담벼락에서 구름도 피워냈을 것이다. 그들의 청춘이 이곳에 있었다.

상상에 상상을 더하며 나른해지려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분이 스윽 다가와 묻는다.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지요? 저, 혹시, 우리 아이도 좀 디자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신이 번쩍 든다.

“아뇨, 어머니도 못 하시는 일을 누군들 할까요.”

그 옆에 친구 분이 머뭇거리다 묻는다.

“여기 저 같은 사람도 와도 되나요? 청소년 아니지만 제 삶을 디자인하고 싶은데요.”

아, 이런 질문은 무지 많이 받았다.

“당연하죠. 간판에 ‘청소년’이 들어가서 올까말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삶디는 하나의 ‘마을’을 꿈꾸거든요. 마을엔 꼬꼬마부터 꼬부랑 할머니까지 모두 모여 살잖아요. 지금 침대는 학교, 학원, 내 집만 왔다 갔다하니 이웃과 마을을 모르고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마트에 가서 돈 쓴 줄은 알아도, 내 손으로 만들고 남은 건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눌 수 있으리란 상상까지 못해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 하지만 가슴 속 저 깊은 곳에는 함께 잘 살고 싶은 본능이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 본능을 삶디에서 깨우면 좋겠어요. 채소를 기르고, 그걸로 요리를 하고, 옷도 지어입고, 내 수저 하나 깎는 작은 일부터 집 짓는 큰일까지 직접 해보고, 별별 직업을 가진 어른들도 만나보고, 왜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면 일단 빈 공간 많으니 그냥 쉬어도 좋고요. 뒹달하는 세상의 눈을 피해 잠시 삶디에 숨어 뒹굴 거리거나 재밌는 일을 꾸며보면 좋겠어요. 그건 침대여도, 팔십대여도 좋아요.”

아, 숨 찬다. 말처럼 쉽게 삶디가 모두의 마을이 되면 좋겠다. 상상을 돕기 위해 일단 공간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하자면, 삶디엔 ‘모두의 부엌, 커뮤니티 카페 크리킨디, 생활목공방, 살림공방, 열린책방, 지혜로운 방, 공유책상, 미니극장, 작고 큰 회의실, 워크룸 여러 개, 랄랄라홀, 몸짓작업장, 녹음스튜디오, 합주실, 그리고 삶디텃밭’이 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고 더 물으시는 분께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hellosamdi)과 블로그(blog.naver.com/hellosamdi) 주소를 전한다. 그래도 영 궁금하시다면 아봉(062-224-0544)에게 ‘삶디투어’를 예약하시길. 아니, 그냥 시내 온 김에 들러도 환영. 이왕이면 삶디에서 밥 짓는 목요일 점심과 저녁에 오시기를 살짝 추천한다. 얼마 전 삶디텃밭에서 기른 배추로 담근 김장 김치가 모두의 부엌에서 당신을 기다린다. ♪

예술은 가난을 구할 수는 없어도 위로 할 수는 있습니다

- 허니펀치프로젝트

양동준_ 허니펀치프로젝트 대표

국내최초의 민간소극장으로 유명한 삼일로창고극장에 걸려있던 글귀이다. 이처럼 예술은 우리의 삶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지만 이러한 위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들도 분명 존재한다. 또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대중들과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예술도 존재한다.

허니펀치프로젝트(이하 허니펀치)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출발하여 문화와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며 문화소외계층은 물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즐거운 문화를 선보이고자 2013년에 탄생한 문화단체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대중들과의 소통을 시도하면서 문화를 통해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하고



꿈다락문화학교 활동 모습

자 한다.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나 사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문화를 즐기며 어울리는 것이면 충분하다.

허니펀치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문화를 토대로 하여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문화기획을 하기 위해 고민하였으며 이 중 가장 먼저 기획했던 것은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소개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혜택 제공이었다. 해외에서 한국의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바이로이트 한국영상제-한국영화의 오늘과 내일>을 시작으로 일반관객이 티켓을 구매할 경우 불우이웃의 티켓까지 자동구매되어 장애인, 문화소외계층의 우리 이웃이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허니펀치 데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다루었지만 우리나라 영화계의 자본의 논리에 의해 관객과 많이 만날 수 없었던 좋은 영화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특별영화 상영회<숨은영화찾기> 등이 그것이다.

또한 허니펀치는 실력있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오디션프로그램 <슈퍼스타 K4>에 출연하여 개성있는 목소리와 뛰어난 실력으로 화제가 되었던 광주출신 참가자 박다빈양과 MC성균의 디지털싱글 앨범을 제작하여 발표하였으며 특히 박다빈양은 기아타이거



베트남 공적개발원조 문화예술교육 활동사진

즈 초청 애국가제창 및 축하공연을 비롯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을 통해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광주인권영화제 및 서울장애인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각장애인영화감독인 노동주감독의 장편영화 <보통사랑>을 제작 준비중이기도 하다.

그리고 2016년 들어 허니펀치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이것을 통한 상호간의 정서와 문화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건전한 주말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2016꿈다락토요문화학교'의 프로그램 선정작 <아마추어방송국>을 통해 지역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미디어 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베트남 공적개발원조 문화예술교육 ODA사업>의 운영단체로 선정되어 베트남에서도 지리적 여건상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소수민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극/미술/

사진 등을 활용한 통합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생대상 수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직교사 및 사범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매개자교육을 통해 허니펀치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종료 된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져 베트남 현지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꽃 피울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지리적 여건으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은 그 지역인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미래에 큰 자산이 된다. 또한 예술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늘 함께한다. 팍팍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며 감성적 충전을 통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치유제 중 하나이다. 앞으로도 허니펀치의 즐거운 상상이 문화를 통해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자 한다. ♪

광주에서 문화의 문제

이민원_ 광주대 교수, 재단이사



지역문화교류재단에 참여한 세월이 쌓이다보니,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의 횡수도 늘어간다. 또한 경제학교수이자 과거 균형발전정책 집행자로서는 문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역발전의 한 수단이자, 광주 특화발전의 방향일까? 이 글은 어쩌면 그런 개인적 질문에 대한 고민의 편린이다.

여하튼 광주는 이래저래 문화와 관련된 도시다. 참여정부 이래 ‘광주는 문화수도다’ 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 문화는 광주발전 정책을 강구할 때 늘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 되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있을 정도이니, 한국의 문화수도를 넘어 아시아문화의 소통 터미널로의 발돋움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 라는 독자적 영역이 존재하고, 광주는 그 ‘문화’ 라는 분야에 특화된 도시라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광주는 문화산업을 융성시켜 부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과연 정말로 문화가 광주의 독자적 개성일 수 있을까? 나에게는 이게 아직 명쾌하지 않다. 실제로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광주를 설계했을 때 광주의 미래가 보장되는가에 대한 확신은 서지 않는다. 특히 광주 먹거리의 중심에 문화를 끌어들여 문화산업 융성 운운에 이르면 더욱 그렇다.

‘문화’ 가 하나의 영역으로, 혹은 산업의 영역으로 축소되어도 무방한 것일까? 만일 문화의 독자적 영역이 존재할 수 없다면, 광주가 어떻게 문화를 개성으로 한 지역발전을 추구해나갈 수 있겠는가. 따라서 문화 영역의 독자영역 여부가 광주 비전세우기에 핵심이슈로 떠오른다. 이 의문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문화도시 운운 하면서 광주의 비전을 세워나간다면, 그게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여기에 광주시민의 명운이 달려있고도 남는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 참여정부에서 광주를 문화수도라고 칭하니, 전국적으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자신들도 무슨 무슨 문화수도라고, 문화수도 앞에 수식어를 붙여 발표하는 붐이 일었었다. 요는 광주가 문화수도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니, 문화가 하나의 산업적 영역을 갖는다고 해도, 광주는 문화영역 중에서 광주만의 영역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광주의 문화 문제를 풀어갈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문화란 하나의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모든 것의 껍적이라고 생각한다. 문화가 하나의 독립적 영역으로 존재한다면 문화라는 독립적 영역이 없는 지역의 시민은 도저히 문화시민이 될 수 없을

광주가 문화로 개성을 구축하여 비전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은 광주가 세상을 선도한다는 뜻 아닌가. 지금 광주 시민의 삶이 최소한 한국인의 삶의 꼴대가 되고, 광주시민의 생활철학이 한국인의 정신에 녹아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상태는 광주시민의 자부심을 무한에 이르게 할 것이다.

것이다.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과거 우리들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삶의 모습이 아닐까. 문화란 공간적으로는 영역을 분리해 낼 수 없고, 시간적으로는 지금을 대상으로 한다.

자, 논의가 이렇게 흐른다면 광주가 문화로 개성을 구축하여 비전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은 광주가 세상을 선도한다는 뜻 아닌가. 지금 광주 시민의 삶이 최소한 한국인의 삶의 꼴대가 되고, 광주시민의 생활철학이 한국인의 정신에 녹아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상태는 광주시민의 자부심을 무한에 이르게 할 것이다.

어떤 방법을 써야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 중 하나가 자주경제의 성공이다. 호남차별에 투덜덜 시간도 없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역발전에 몰두하여 성공해야 한다. 중앙정부 아니 지방정부의 도움 없이도 시민 스스로 행복한 길을 찾아낼 저력을 지녀야 한다. 인간은 누구에게 의존해 행복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다. 요즘 공동체를 많이들 말을 하지만, 공동체가 만능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와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문화도시는 이렇듯 무시무시한 말이다. 그러니 문화의 범주를 아무래도 조금 좁힐 수밖에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문화’ 를 운운 할 때 마음속으로 ‘예술’ 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만일 예술이 광주의 개성이 될 수 있고, 광주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런 예술을 만들어낼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를 예술도시로 만들려면 광주시민의 예술성이 드러나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광주의 개성이 된다.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참으로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혹은 직업인을 보고 가끔씩 절망한다. 국민을 행복하게 지켜주겠다는 정치인은 대통령부터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데 여념이 없고, 국민의 종이 되겠다는 공직자들은 국민을 종으로 알고 괴롭히며,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경제학자들도 스스로를 부자로 만드는데 관심을 둘 뿐이다. 문화종사자들은 어떤가.

우리 광주의 문화 종사자들도 넓게는 진정한 문화를 생산하고, 좁게는 시민이 행복해지는 지금 이 순간의 예술을 생산해내는데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물론 전 시민이 모두 문화종사자일 수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

위기는 기회다

주 홍_ 치유예술가, 재단 운영위원



2001년 늦은 가을, 나는 한 남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나는 미술계에서 소문난 자유로운 영혼이라 돈만 생기면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나며 살던 시절, 인도에서 돌아와 선암사 앞에 작업실을 얻어 살고 있는데, 혼자 아침을 먹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다. 그래서 문득 함께 밥 먹자고 하면, 밥을 사줄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나만큼이나 자유로운 영혼의 조각가였다. 몇 번 만나서 밥을 먹으며 우리는 늦은 밤까지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 어느 날, 친구에서 남녀사이로 진행되려하자, 그 조각가 친구가 수첩을 꺼냈다.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라는 노래의 가사가 적혀있었다. 수첩에 적힌 가사는 또박또박한 글씨체로 정직함이 묻어났고, 그 가사의 한 대목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너에게 내 불안한 미래를 함께 하자고 말하긴 미안했기에~” 나는 그가 가리키는 밑줄이 그어진 대목을 소리 내어 읽었다. 그리고 물었다. “이 지구에서 현재 가장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말이 없었다.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리나라의 노무현, 이회창 두 후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래가 불안하고, 세계적으로 보면, 911사태이후 전쟁을 하기로 결심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잖아요. 미래는 누구나 불안하지만 그래도 꼴찌에게 미래는 창창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 올라갈 길만 남았고, 부시 대통령은 1등이니, 내려갈 일만 남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있던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만을 믿고,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정말 가난하게 시작했다. 그리고 역경이 닥칠 때 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극복했다. 15년이 흘러 지금 우리는 각자 탄탄한 작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요즘 정국이 흔들리고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위에서 나랏돈을 빼돌리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을 수 있으며, 위에 그런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나라가 잘 돌아갔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 허수아비인 대통령이 그 인맥으로 권력을 이용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 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하고 오히려 희망적이다.

“이게 나라냐?” 촛불과 함께 광장과 거리에 시민들이 들고 나온 문구다. 우리나라 지도자층의 사리사욕에 얽힌 비리와 도덕성 등등, 삼류 드라마보다 더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일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희망이 있단 말인가? 되돌아보게 된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위에서 나랏돈을 빼돌리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을 수 있으며, 위에 그런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나라가 잘 돌아갔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 허수아비인 대통령이 그 인맥으로 권력을 이용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 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하고 오히려 희망적이다.

며칠 전, 초등학교 5학년 장난꾸러기 아들이 갑자기 물었다. “엄마, 우리나라 대통령 말이에요. 사춘누나가 중학교 2학년이지만 지금 대통령을 해도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사춘 누나가 공부를 잘하고, 반장이라서 그런 거니?”, “공부도 잘 하지만, 누나는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둘째, 판단력이 정확하고, 셋째, 먹을 것을 나눌 때 분배를 잘 하거든요.” 게임만 좋아하는 철없는 초등학생이 생각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심각하게 보였던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이 부끄러운 사건을 보며 국가와 권력, 사회 정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며 판단력을 갖게 되고, 어른들은 우리가 미안하다고 반성한다.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재벌 등 권력자들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추악한 욕망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우리나라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희망적이다.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평화로운 시위를 마치고 스스로 쓰레기를 줍고, 뒷정리를 하는 시민들을 보며 우리나라는 이번을 계기로 지역 간에 조장된 분열에서 통합으로 나아가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촛불시위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창창한 미래를 보았다. 개인에게도 위기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이듯, 대한민국도 이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

하던 대로가 아닌, 새로움 향한 시도를...



김영순_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올 한해 사업을 정리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는 때다. 이 맘 때가 바쁘고 부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무리도 힘들지만 동시에 내년 계획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에 그렇다. 사업 계획이란 게 기존에 하던 대로의 방식과 내용을 고수하면 어려울 것도, 바쁠 것도 딱히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뭔가를 시도하고 변화를 도모하려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크게 티나지 않더라도 소소한 발전과 변화를 꾀하려 해도 나름의 궁리와 몸부림이 곁들여져야 한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변화를 도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되는 소명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어쩌면 나라를 지키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을 켜고 금남로를 행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사로움 없이 일을 처리해야 하고 하던 대로, 즉 타성에 젖어서가 아니라 새로움을 내질러야 한다. 일 처리를 하던 중 느꼈던 개선사항, 애로점, 혹시 이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부분 등을 꼼꼼히 체크해 적용해보는 일을 사업 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는 이 때 챙겨야 한다. 그 누구에게가 아닌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미션이고 각오로 말이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했던 2016년 사업을 되돌아본다. 재미처럼 엮으려 뭔가를 많이 하긴 했다. 재미처럼 일한다고 칭찬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에다 전문성을 갖추고 미래비전을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시대다. 양은 물론 퀄리티까지 높여야 하는 거다. 그래서 업무를 똑바로 수행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야만 한다. 각설하고, 2016년엔 토요문화학교운영사업의 예산이 예년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내발적 동기에 의해서 아니라 주어진 여건의 변화로 인해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자체기획사업을 발굴해야 했다. 그게 지난 해 이맘 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뭘 할 것인가를 고민 끝에 토요방학캠프,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그리고 광주청소년문화탐험대를 자체사업으로 꾸렸다. 토요방학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8월 여름 2박

문화예술교육이 대한민국에서 문화부 정책사업으로 11년째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민이 부지기수다. 때에 따라선 운영단체, 특히 신규 운영단체들의 경우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지향점을 잘 알지 못하기도 한다.

3일간 광주광역시청 1층 로비에서 문화예술로 놀았던 캠프였다. 예술가 10여명이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터를 만들어 놀았다. 참가 어린이들은 자신의 인생 한 가운데에 지워지지 않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그랬다는 후문을 들으면서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는 교육지원사업을 꾸리는 운영단체와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운영단체는 60여개 정도. 이들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싶어서였다. 문화예술교육이 대한민국에서 문화부 정책사업으로 11년째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민이 부지기수다. 때에 따라선 운영단체, 특히 신규 운영단체들의 경우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지향점을 잘 알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저러한 점을 감안해 문화예술교육을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짚어보자는 의도가 있었다. 적어도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주체들만이라도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축제를 통해 공유해보자는 취지였다. ‘모여라, 아트 날라리’란 타이틀 아래 10월 22~23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잔디밭 하늘마당에서 벌어졌다. 참여단체들은 첫날 불편함을 호소했다. 의자와 탁자를 구비하고 해를 가리는 파라솔 등을 원했으나, 잔디밭의 특성을 살려 모두 생략하고 돛자리와 간단한 앉은 탁자를 배치하고 어린이들을 맞았다. 첫날의 불편함은 둘째 날 계속 이어진 시민들과 어린이들의 호응에 힘입어 눈 녹듯 사라지고 문화예술교육 특유의 축제에 빠져들어 사라졌다. 운영단체들이 기획단을 꾸리고 진행했으나, 참여 단체들의 전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은 센터가 시스템적으로 더욱 보완하고 고민해야 할 점이었다. 그들이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참여할 기회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점을 살펴야 했다. 다음으로 광주청소년문화탐험대 활동이다. 아쉬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광주알기 프로젝트로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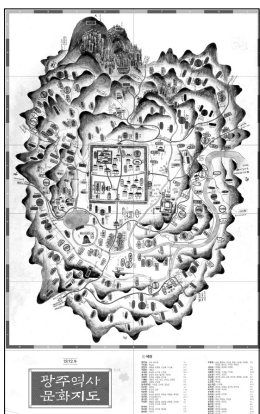
그 외에 기획자양성사업 ‘모담모담’, 인큐베이팅사업 ‘아장아장’, 창의예술학교운영사업 그리고 자율연계기획협력사업 ‘아프르릉’이 2016년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의미있게 진행된 사업이다. 내년에도 이러저러한 사업을 진행할 터이다. 올해 하던 그대로가 아니라 하던 것에서 한 발짝 나아간 발전된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타성에서 벗어나 힘들더라도 새로운 포석을 놓아 발전의 기틀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게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야 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재단소식

[재단소식]

• 사업

광주 역사문화 속에서 이야기 광맥 찾는 2016년도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완료



흩어져있는 광주역사문화자원을 모아 역사교육자료 및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2016 광주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이 『광주역사문화자원 100』 스토리텔링 책자와 역사문화지도 2종을 제작 출간하는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됐다. 향후 광주역사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담아내는 '광주역사이야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광주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속에서 이야기의 광맥을 찾아내는 사업을 전개

할 예정이다.

한편 스토리텔링 책자와 역사문화지도는 광주지역 도서관 및 연구소,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광주정신의 미래적 가치를 찾다” 성료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는 제10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이 15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10. 4.(화) 오후2시 전고필 대인 예술시장 감독의 '마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광주정신' 강좌를 시작으로 11. 1.(화)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강당에서 '광주정신

의 미래적 가치를 찾다'라는 주제로 제10기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열리는 시민대학은 전고필 감독의 강좌를 시작으로 제2강 '공동체로 만나는 광주정신'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10. 11.), 제3강 '의향으로서의 광주정신' 김성 전 무등일보 편집국장(10. 18.), 제4강 '예향으로서의 광주정신' 이이남 미디어아트작가(10. 25.)가 강사로 참여하였고, 충남 보령으로 떠나는 역사문화탐방(11. 1.)을 병행하였다.

제14회 학술심포지엄 성황리에 마쳐



우리 재단과 호남사학회, 광주교육대 역사문화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4회 학술심포지엄이 지난 10. 5.(수) 오후3시 광주교육대 교육매체관 오현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해방 이후 광주지역의 근대교육'을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창엽, 신태윤, 이을호 선생에 대한 삶과 철학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발표는 • '이창엽과 교원교육-이창엽과 광주사범'(김홍길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소) • '신태윤과 민족교육 - 배달조선 정사를 중심으로'(류시현 광주교육대 교수) • '이을호와 국학교육-한국철학사 방법론을 중심으로'(장복동 전남대 철학과 강의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임영언 전남대 세계한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조상현 전남대 코아사업단 전임연구원과 김영호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HK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서 발표했다.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3’ 성료

호남기록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3' 시민강좌는 우리 재단 주최로 11.

재단소식



4.(금)부터 11. 29.(화)까지 매주 금요일과 화요일 저녁 7시에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홀에서 여덟 강좌가 100여 명이 넘는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좌프로그램은 제1강 '한국사에서 전라도 바로보기' 조법종 우석대 교수(11. 4.), 제2강 '미술로 보는 한중일의 문화지형' 지상현 한성대 교수(11. 8.), 제3강 '조선을 만든 힘, 책과 책벌레들' 강명관 부산대 교수(11. 11.), 제4강 '문화공간으로써의 누정과 가사문학' 김신중 전남대 교수(11. 15.), 제5강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역사인식은 무엇인가' 고석규 목포대 교수(11. 18.), 제6강 '고문서 속의 노비와 양반' 안길정 5·18기념재단 전임연구원(11. 22.), 제7강 '전라도 택리지 - 어디에 살 것인가?' 신정일 문화사학자(11. 25.), 제8강 '호남의 감성으로 그린 서화가들' 이선옥 미술사학자(11. 29.)으로 총 8차례 강좌로 이루어졌다.

호남의병 기념사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갖고 본격적인 연구 들어가

우리 재단이 수행하는 '호남의병 기념사업 연구용역' 사업이 지난 12. 5.(월) 오후 2시 광주시청 문화관광체육실 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용역은 호남의병 활동의 기록, 유물, 유적 등을 조사하여 향후 선양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로, '한말호남의병선양사업에 대한 광주시 조례' 제정에 따른 구체적 사업 실행의 필요성에 따라 발주되어 본 사업은 지난 11. 10.(목)부터 시작해 오는 2017년 6. 7.(수)까지 완료된다.

‘광주읍성 흔적을 통해 미래문화유산 남기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마무리

- 주홍 작가와 함께 하는 광주읍성 꿈다락 이야기

9. 3.(토)에는 주홍아티스트와 함께 하는 특강을 통해 사라진 광주읍성의 흔적을 광주폴리를 통해 찾아보고, 콜라주 기법으로 광



주의 이미지를 표현해보는 즐거운 모듬활동을 진행하여 참가한 아이들의 호평을 받았다.

- 조선시대 읍성 만나기, 낙안읍성 탐방



지난 10. 15.(토) 광주읍성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0여 명의 2기 참가자, 가족과 함께 사라진 광주읍성의 모습을 타 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읍성의 모습을 통해 유추해보고자 전남 순천 낙안읍성 탐방을 진행하였다. 현지 문화해설사와 동행한 이날 탐방은 낙안읍성 축제기간 중 진행되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활동 등이 있어 함께 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읍성의 동헌, 객사, 옥사 등 두루 탐방하면서 광주읍성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낙안읍성의 모습을 주제로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 좀더 읍성의 모습을 구체화 하여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2016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모여라! 아트날라리> 참여

올해 광주지역에서 진행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문화예술교육 등 모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모이는 “2016 광주문화예술축제 - 모여라! 아트날라리” 행사가 10. 22.(토)과 23.(일)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문화예술교육 공동발표회

재단소식



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2기 참가자들과 교육과정을 진행하였고, 특별체험으로 광주읍성을 이해할 수 있는 동문 밖 장승을 석고로 만들기과 다양한 다른 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미션을 통해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2기 결과발표회 열려

지난 11. 26.(토), 2기 참여자, 가족, 강사, 재단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기 광주읍성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발표회가 재단 강의실 및 광주국제교류센터 갤러리에서 열렸다. 1부는 재단강의실에서 7. 30.(토)부터 현재까지 진행했던 교육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2기 참여자가 제작한 미래문화유산(나만의 풀리) 작품을 가족과 함께 꾸며보는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2부는 광주국제교류센터 갤러리에 전시된 2기 참여자가 그리고 만들었던 모든 결과물, 활동사진 등을 참석한 모두가 확인하고, 즐거운 다과회를 조출하게 열었다.

• 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연대활동

–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8. 23.(화), 11. 10.(목) 오전 11시 각각 오월어머니집 및 광주 장애인문화협회 사무실에서 올해 세 번째, 네 번째 문도협 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박병주 상임대표 주재로 열린 모임에서는 하반기 사업계획 및 미래비전 TF팀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하고, 하반기 회원단체 워크숍을 송년모임으로 추진하도록 의결하였다.

– 하반기 회원단체 워크숍 및 송년모임 추진

지난 12. 15.(목) 오후 6시 텃밭한우 초청 식당에서 2016년도 하반기 문도협 회원단체 워크숍 및 송년모임이 약 10여 명 회원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회원단체 송년모임과 병행하여 개최한 이날 모임에서는 문도협 활동에 대한 하반기 평가 및 이후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회원단체 간 올해 평가 및 내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 회원

재단 웹뉴스레터 발행

현재 7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 발행된 재단 웹 뉴스레터, 재단 활동소식 및 회원소식을 좀 더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매월 1회 발행하고 있다.

NEWS LETTER	
VOL.06 2016. 12	지역문화교육재단
재단소식	
01 2016 재단 후원의 밤 성황리에 열려 회원과 각계 인사 약 200명 참여, 소풍과 교류회 강 마면	02 호남기독교문화유산 시민강좌 모두 마쳐 총 17차시 교육과정으로 교학내용 및 교류를 공유하는 시간 가
03 꿈다락토요문화학교 2기 결과발표회 열려 총 17차시 교육과정으로 교학내용 및 교류를 공유하는 시간 가	04 호남의병 기념사업 연구용역 시작 내년 6월 초까지 호남지역 의병 연구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수행 예정

2016 재단 후원의 밤 성황리에 열려

재단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11. 30.(수) 오후 6시 30분에 회원과 각 계 인사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산동 베네치아에서 열렸다. 창립 11주년 기념과 병행하여 열린 이날 모임에서 강동완 진흥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후원의 밤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재단의 새로운 비전과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채로운 축하공연과 함께 펼쳐진 이날 행사에서 이대성 이사과 송광룡 회원에게 감사패

재단·회원소식



를 증정했으며, 재단 사업과 연계한 지역 주민, 관련 연구기관, 네트워크 단체 회원이 참여하여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조직

2016 재단 후원의 밤 평가회의 개최



재단 임원회의 및 후원의 밤 준비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10여 명의 준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그동안 모임에서는 우리 재단을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달과 재단의 인적, 물적 토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후원의 밤 개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11. 30.(수) 후원의 밤 기획 및 준비를 논의하였다. 한편, 지난 11월 말 후원의 밤을 성황리에 마치고, 12. 14.(수) 평가모임을 통해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에 대하여 격려하고 향후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2016년도 전체임원회의 및 송년모임 개최

재단 임원회의 및 송년모임이 지난 12. 22.(목) 25명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임원 송년행사와 병행한 이날 모임에서는 재단 재정 운용 여건을 감안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6평가와 2017년 사업조직예산(안)을 승인하고, 추경을 논의하는 2월 정기이사회에서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을 다루기로 하였다. 한편,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사무처에서 의사를 확인하고 각 의결단위별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정기이사회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회원소식]

강동완 진흥회장, 조선대 제16대 총장으로 선출되다

조선대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강동완(61) 치의학과 교수는 9월 22일 "간학 100년을 생각하며 미래 비전을 실천하는 신바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후 조선대 법인 이사회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강 신임총장은 "총장 선거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은 조선대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학교 이미지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전남일보〉발췌

회원소식

+++++

남성숙 재단이사, '2016 한국지역발전대상' 지역언론부문 최우수상 수상하다



광주매일신문 남성숙 대표이사가 '2016 한국지역발전대상' 지역언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6 한국지역발전대상' 심사위원회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은 10월 3일 남 대표는 "호남 최초의 여성 대표이사 선임 이후 인터넷 TV인 광주매일TV를 인쇄매체인 광주매일신문과 결합하는 융복합 미디어 전략을 개발해 지역언론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앞장서왔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이연수 재단이사(호남대 교수), 광주시 지역발전연구단 위원 위촉되다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연수 교수가 광주광역시 지역발전연구단의 문화·체육 분야 위원으로 위촉됐다. 광주MBC 편성제작국장 등을 역임한 이 교수는 문화·체육 분야에 소속돼 2017년 상반기까지 문화·체육 분야의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아시아경제> 발췌

한희원 회원, 한희원미술관 개관 1주년 기념전 개최하다

지난해 7월 양림동에 문을 연 한희원미술관에서 개관 1주년과 '2016 광주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7일 31일 '골목길에서 만난 양림정신'전이 열렸다. 한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 1년간 양림동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캔버스에 옮긴 신작 '바이올린 켜는 사람, 양림



골목길', 별빛이 반짝이는 '최승호 고택으로 가는 골목길', '기독병원에서 바라 본 양림교회', '오웬기념관, '이창우가옥 가는 골목' 등 20여점을 선보였다.

- <광주일보> 발췌

진시영 운영위원, 빛으로 이야기하는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패스' 공연 개최하다

'빛'을 주제로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예술가들의 협업 무대가 나주 혁신도시에서 펼쳐졌다. 다원예술 프로젝트 '씨클' 팀이 10월 20일 오후 7시 30분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펼쳤던 융·복합 퍼포먼스 '패스(PASS)'다. 패스는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과 안무가 조가영 그리고 작곡가 이상록이 의기투합해 야심차게 만든 융·복합 퍼포먼스다. 지난해 '뉴폼' 공연 때보다 한층 더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협업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아방가르드'한 실험적인 다원예술을 펼쳤다.

- <전남일보> 발췌

이이남 회원, '포세이드리의 눈빛' 국내 개인전 개최하다



이이남 작가가 국내에 2년 만에 선보이는 개인전 '포세이드리의 눈빛'이 10월 12일 막을 올려 11월 16일까지 서울 포스코미술관에서 진행됐다.

이이남 작가는 디지털 기술과 동서양 고전을 절묘하게 접목시키는 '뉴미디어 아트'로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며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이번 개인전은 그런 그가 2년만에 고국에서 갖는 전시회로 전시작 대부분이 처음 공개되는 것들이다. 전시 타이틀인 '포세이드리(PoseidLEE)'는 '포세이돈(Poseidon)'과 '이이남(Lee LeeNam)'을 합성해 만든 신조어다. 이는 신과의 소통을 통해 진리에 다다르고자 하는 구도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장인의 숨결이 서린 자연의 총천연색과 침

회원소식

+++++

단기술이 만들어낸 빛을 씨실과 날실로 삼아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해냈다.

- <중앙선데이> 발췌

윤만식 재단이사, 탈 전시회 '봉산아 양주와 놀자展' 열다

각양각색 탈을 만든 이는 윤만식 광주 민예총 회장. 마당극 등 민중 공연예술의 터줏대감인 그가 다양한 탈을 선보이는 '봉산아 양주와 놀자'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광주시 동구 소태동 갤러리 생각상자)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한지로 만드는 봉산 탈춤의 전통 탈과 창작 탈, 바가지로 만드는 양주 별산대 놀이 전통 탈과 창작탈 등 모두 4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 <광주일보> 발췌



이동순 운영위원, 『광주 문학 100년』 발간하다

광주 문학의 100년사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지역의 인문·역사·문화 유산을 책자로 발간하는 광주학총서시리즈 7번째 책자인 『광주 문학 100년』(저자 이동순)을 발간했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책은 336페이지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근대 광주의 풍경과 광주 문학의 태동', 제2장 '광주의 민족운동과 광주 문학', 제3장 '광주문학의 지형, 시문학파', 제4장 '해방기, 침묵의 문학', 제5장 '한국전쟁, 광주 문학의 역동', 지역 언론이 광주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광주고등학교 문예부 활동 상황과 광주 문단이 중앙 문단으로 진출했던 역사가 6장과 7장에 담겼다.

- <뉴스시스> 발췌



이문범 회원, 『산 따라 물 따라』 자서전 발간하다

광주 서구청장 임우진은 '제2회 서구 어르신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최근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어르신들의 인생 여정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후손과 사

회가 공유하고 삶의 지혜를 물려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출판기념회는 어르신들과 가족, 친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어르신 자서전 쓰기사업은 서구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결과 총 11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파란만장한 인생을 책에 담아냈다.



- <광남일보> 발췌

정순기 운영위원, 광주연극협회 '양로원 탈출기' 연극공연 개최하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는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오후 7시30분 공동예술극장에서 '양로원 탈출기'를 선보였다. 지역의 원로 연극인과 젊은 연극인이 어우러진 이번 작품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양로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리고, 양로원의 생활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꼬집고 있다.



- <광주 뉴스시스> 발췌

박윤모 회원, 18년만의 모노드라마 신작 '동행' 공연 펼치다

광주시립극단 박윤모 예술감독의 대표극 '아버지'에 이은 모노드라마 2탄 '박윤모의 동행'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광주공동예술극장 무대에 올랐다. 박 감독의 18년만의 모노드라마 신작이다. 박 감독은 200회 이상 공연했던 그의 인생작 '모노드라마 아버지'를 뒤로하고, 배우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박 감독은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모노드



회원소식·함께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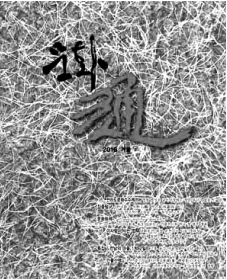


라마 '동행'으로 연극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다. 그가 직접 연기는 물론 대본과 연출을 맡았다.

－〈전남매일〉발췌

지형원 이사, 문화전문 계간지 『문화통plus』 겨울호 출간하다

인터넷신문 문화통(대표 지형원)이 발행하는 문화전문 계간지 『문화통plus』 겨울호(통권 21호)가 출간됐다. 이번호는 전라도문화수수계끼를 특집으로 「법성포 굴비덕장에는 정말 파리가 없을까」를 준비했다. 법성포에는 파리가 없다는 소문을 근거로 바람세기, 염분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근거를 밝혔다. 「집중탐



구」코너 주인공은 석현 박은용이다. 1944년 진도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전 이후 벌어진 이념전쟁에서 아버지와 형을 잃은 아픔을 한 평생 작품으로 승화시킨 인물이다. 시리즈물 「전라도 마을 1박 2일」코너에서는 여산 송씨 집성촌인 고흥 동강과 대서마을을, 인물 산책 코너에서는 관서별곡을 쓴 기봉 백광홍 선생을 조명했다.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강동완 진흥회장, 제16대 조선대 총장 당선
- 이연수 이사, 광주시지역발전연구단 위원 위촉
- 남성숙 이사, 한국지역발전대상 언론부분 대상 수상
- 주 홍 운영위원, 광주국악방송 '무돌길 산책' 진행
- 송진희 회원, 호남대 예술대학 학장 선임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영주 이사 모친상
- 김덕진 이사 빙부상
- 조일형 회원 부군상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강 권(광주시 도시디자인과 과장)
- 고금미(프리랜서)
- 남승진(동아보건대 교수)
- 노은희(조선대 미술대 교수)
- 류연순(주부)
- 김영미(조선대 언어교육원 강사)
- 신지연(프리랜서)
- 윤태병(프리랜서)
- 서강숙(주부)
- 윤병현(프리랜서)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교수

〈부이사장〉

강동완 조선대 총장

김정희 시인, 광주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이 사〉

김대현 전남대 교수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김병기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상임대표

김영주 (사)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하림 조선대 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교수

선현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양형렬 국제로타리 전 총재

양혜령 치과의사

오건규 화가

윤만식 광주민예총 회장

이기훈 상임이사

이민원 광주대 교수

이승권 조선대 교수

이연수 호남대 교수

이철우 전남대 교수

정광민 건축사사무소 서로 대표

정현애 전 광주시의원 부의장

지형원 문화통 대표

차일현 세무사, 전 조선대 교수

〈감 사〉

천형욱 변호사

오경희 세무사

함께하는 사람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정희 시인, 광주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 광주시남구관광청 단장

위 원 강성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조직국장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팀장

이동순 조선대 교수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대표

〈지역문화콘텐츠위원회〉

위원장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위 원 민인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주영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이향준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원

한예원 조선대 교수

〈시민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안태기 광주대 교수

위 원 강혜경 소촌아트팩토리 센터장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박신영 소설가

윤현석 (주)컬쳐네트워크 대표

정순기 광주시연극협회 회장

주 홍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지역문화진흥회

〈회장〉

강동완 조선대 총장

〈부회장〉

오형근 의사

김경옥 약사

〈진흥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이사

김상집 5·18공법단체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 성 전 국회의원장 비서실장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혁 (주)HOI 대표이사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이성일 전 호남매일신문사 사장

이원형 호남대 교수

정병수 남부대 교수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목포지회장

황재익 (주)BioOrigin 대표이사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김민정 사업팀장

이지은 총무간사

재단부설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김덕진 소장

김원중 연구실장

위주영 연구원

편집 후기

혼자였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는 순간,
도시에서 오직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빛나는 것들은 유리벽 밖에서 몸짓만 보내며/
암호 같은 몸짓만 보내며 / 그들의 자리에서 번쩍이는 어둠으로 남아
이 도시의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 중략 -

보이지 않는 끈에 매달려 / 캄캄한 하늘로 올라가는 나는
이 도시의 이름 없는 / 떠돌이별이 되었습니다.

- 구석본, 「떠돌이별」 중에서

2016년 12월의 창에서는 “2017 광주를 부탁해!”를 특집기획으로 꾸몄다. 도심 공간 속의 문화의 흔적과 그것들이 미치는 ‘광주’ 시민 정신의 궤적을 돌아보고 전망해 보았다.

20세기 최대의 도시이론가이자 도시문명비평가인 뎀포드(Lewis Mumford)는 “정신이 도시 속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거꾸로 도시의 모습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 즉 역사 못지않게 공간속에도 도시의 문화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시민정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현대의 도시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 즉 살고(live), 배우고(learn), 일하고(work), 놀고(play), 소비하는(consume) 데 최적화된 정주공간이자 집객공간이 되기 위해서 광주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프린지페스티벌과 촛불민주주의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인 일터로서의 공간과 경쟁을 벗어난 창의적 교육에 대한 대안과 고민을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로부터 들어 보았다.

... 아, 가슴에 굵은 못을 박고 사는 사람들이 생애가 저물어가도록 그 못을 차마 뽑아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생의 가장 뜨거운 부분을 거기 걸어놓았기 때문이란다....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은 뜨거운 못.

로마인들은 1월 1일 마다 선물을 주고 받고 잔치를 벌였다. 두 얼굴을 지닌 1월의 신 야누스(Janus)는 지난해의 잘못을 돌아보고 새해를 새 의지로 내다본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변화는 혼란인 동시에 기회다. 2017년에는 변화를 약속드린다. 올 한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다시 고맙다. 『창』의 식구들과 함께 새해 큰 절을 드린다.